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 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徐冰玉

2014年 2月

한국 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黃正奉

徐冰玉

이 논문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徐冰玉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①_____

委 員_____①_____

委 員_____①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I.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의 일반적 고찰	6
1.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6
2.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분류	9
3.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자유화의 경제적 의미	12
1) 서비스무역의 분류와 중요성	12
2)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의미	15
III.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17
1. 세계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17
2.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26
IV.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41
1. 국제경쟁력 분석 방법	41
1) 국제시장점유율(IMS)	42

2) 무역특화지수(TSI)	43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	43
V.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49
1.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제고 방안	49
1)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분석	49
2)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53
2. 한국 서비스산업의 주요부문별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55
1) 운송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56
2) 여행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59
3) 건설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66
4)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68
VI. 결론	72
참고문헌	76
Abstract	80

표 목 차

<표 2-1> 제품 대 서비스 비교	7
<표 2-2> 서비스의 분류	8
<표 2-3> UR에서의 서비스산업 분류	10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산업 분류	11
<표 2-5> 서비스의 공급형태	13
<표 2-6>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효과	16
<표 3-1> OECD 가입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17
<표 3-2> OECD 가입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18
<표 3-3>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별 GDP 비교 (2011년)	19
<표 3-4> 세계 상품 및 서비스무역 수출입 현황	20
<표 3-5> 세계 주요 서비스 및 상품무역국 순위 (2011년)	22
<표 3-6> 세계 서비스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23
<표 3-7> 세계 서비스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24
<표 3-8> 세계 서비스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10년)	25
<표 3-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2001년~2010년)	27
<표 3-10>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0년~2008년)	29
<표 3-11>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4년~2010년)	30
<표 3-12> 한국 서비스무역의 발전단계	34
<표 3-13> 한국 서비스무역 업종별 현황 (2000년~2010년)	36
<표 3-14> 한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비중 변화 (2001년~2010년)	38
<표 3-15>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수출입 비중 변화 (2001년~2010년)	40
<표 4-1>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IMS (2000년~2009년)	46
<표 4-2>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TSI (2000년~2009년)	47
<표 4-3>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RSCA지수 (2000년~2009년)	48
<표 5-1>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주요국가의 비중	51
<표 5-2> 연도별 부여 가중치	55

<표 5-3> 한국 운송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56
<표 5-4> 한국 운송업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56
<표 5-5> 한국 여행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60
<표 5-6> 한국 항목별 여행업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61
<표 5-7> 주요 국가별 외래관광객 추이 (2008년~2012년)	62
<표 5-8> 5대 여행수지 흑자국과 요인(2010년 기준)	64
<표 5-9> 한국 건설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67
<표 5-10> 한국 건설업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67
<표 5-11> 한국 특허권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69
<표 5-12> 특허권 등 사용료부문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70

그림 목차

<그림 3-1> 한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28
<그림 3-2> 한국 주요 서비스 업종별 고용비중의 변화 (2000년~2010년)	31
<그림 3-3> 한국의 경상수지 발전 추이 (1990년~2010년)	32
<그림 3-4>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 발전 추이 (1980년~2010년)	33
<그림 3-5>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 (2000년~2010년)	34
<그림 5-1> 주요 국가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2000년~2009년)	5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비스의 거래는 오랜 시간 국내 경제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무역 거래 대상으로 부각되어, 상업에 통합된 부수 기능으로 간주되던 서비스가 상업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부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과 서비스산업 자체의 중요성, 제조업과 보완관계 및 국제적 거래 증대 등으로 서비스무역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¹⁾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 수출 점유율을 집계한 WTO의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 들어와서는 전 세계 서비스무역 상품교역량은 3.77만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서비스는 재화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산 활동 또는 경제활동의 산물로,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부문을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산업으로 칭하고 있다.²⁾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3차 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적 서비스화’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경제발전 단계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³⁾

‘산업의 서비스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국제경제에 있어 경제의 글로벌화 및 정보화와 함께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루어 왔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선

1) 김영환,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해양대학교 대학원, 2009, p.7
2) 강준구,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17
3)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00.4, p.196

진국(OECD 가입 30개 회원국)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각국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68.7%에 이르며,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은 각국의 전체 고용 인구에서 평균 68.3%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경제의 산출과 고용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그 형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비스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하여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산업으로 여겨왔다. 또한 국내 산업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서비스라는 무형상품의 특성상 그 교역의 성과를 정확한 통계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도 크지 못했다.

국제무역의 주된 방식은 여전히 상품 교역이지만, 서비스교역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상품 교역 점유율이 총 GDP의 15% 정도에 달하는 가운데, 서비스교역은 OECD 회원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GDP의 4%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등에서 서비스 교역 증가는 1990년대에 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율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6~10% 정도다.⁵⁾

이에 세계경제를 선도해온 미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신 서비스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흑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으로 부터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받았던 독일과 일본이 서비스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를 줄여가고 있다.⁶⁾ 이는 국가의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어갈 수록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분야에서 먼저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에서도 자유

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경제 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2011년 11월 현재 총 회원국은 34개국이다.(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한국은 1996년 12월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되었다.2007년 기준 OECD 가입국에는 4개국(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이 포함되지 않았다.

5) 유장희,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 p.25

6) 유장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영산논총」, Vol.16, 영산대학교, 2006, p.157

화의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 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조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10월 28일 현재 WTO에서 집계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발효 건수는 총 310건이며⁷⁾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181건, 서비스 협정(Service Agreement)이 92건,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이 15건⁸⁾,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이 2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또한 현재도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거나, 협상 중 또는 체결 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무역협정들이 있어 향후 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상품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무역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기구 또는 서비스협정들에 의한 자유화의 교역 상대국의 시장, 특히 서비스시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 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서비스무역 자유화 이익은 자국의 서비스산업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수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과, 점증적으로 서비스무역량이 세계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또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해 왔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및 무역 정책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7) 보통 지역무역 협정 체결시 서비스협정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상기 수치는 서비스협정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 개도국간 특혜협정, 관세동맹인 경우 해당 지역무역협정과 서비스협정이 각각 중복하여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의 경우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으로 총 2건으로 집계되었다.

8) WTO통계에서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은 각각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와 PSA (Partial Scope Agreement)라는 명칭으로 나타내고 있다.

9) 자료출처 <http://rtais.wto.org/WebControl/exportgrid.aspx>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체 무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수지에서 서비스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비스무역에서 적자는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상쇄시키는 주요 용인으로 작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제조업과 상품 무역과는 달리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비켜서있던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서비스산업 및 무역의 추이와 동향, 그리고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서비스산업 및 무역의 추이와 동향, 한국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부문의 고용, 서비스무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액으로 무역특화지수(TSI) 등의 국제경쟁력 추정지표를 추출하여 서비스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무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내 및 국제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각종 국내외 학술논문과 전문서적, 학위논문 그리고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 유관기관의 자료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부처 웹사이트 및 통계연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과 그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와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 등의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산업 전체 또는 서비스무역 전체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무형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므로 그러한 특성의 한계로 제조업 또는 상품 무역에 비해 서비스산업 또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국내외의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

역국 상호간의 직접적인 서비스무역 통계수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치를 대용하여 한국과 비교대상 국가들 간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 하였다.

한국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세계의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 동향에 대해서는 대표적 국제경제기구들의 통계자료인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선진 5개국,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 관계를 유형제인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 중국을 포함한 것은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교역규모에 있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과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국제수지통계(BOP,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를 바탕으로 추출한 한국,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액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화무역에 대한 분석에 적용되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무역 부문별¹⁰⁾로 7개국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10) 서비스무역 전체에 대한 비교와 서비스무역 11개 부문별(운송 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 서비스)로 비교분석함. 정부 서비스는 상업 서비스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별 비교분석에서는 제외함.

Ⅱ. 서비스무역의 일반적 고찰

1.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서비스란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비스는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학자, 시기, 상황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소비자로서 지속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소비활동을 해왔던 것들 즉, 교통, 도소매, 금융, 통신, 여행, 운송 등 매우 포괄적 범위가 모두 서비스에 포함된다.¹¹⁾

경제학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흔히 ‘재화와 용역’이라고 일컫는 것 중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할 때 인간에게 즐거움(편의)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사고파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화’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다.¹²⁾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¹³⁾ 일반 상품의 유형성과 비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intangibility)이다. 무형성 이외에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이질성 및 소멸성 혹은 저장 불가능성 등이 서비스의 주요 특성¹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일반재화는 유형이라는 성질을 가지지만 서비스는 무형의 어떤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의 서비스는 저장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1) 金映桓,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 경쟁력에 관한 연구」, 韓國海洋大學 大學院, 2012, p.8

12) 유장희,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 p.25

13)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14)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적 서비스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2.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도 가진다.

둘째,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때 여러 가지 가변요소가 많으므로 동일한 공급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서비스의 질 또한 균일화하기 어렵게 된다.

<표 2-1> 제품 대 서비스 비교

제 품	서 비 스
유형성	무형성(intangibility)
동질성	이질성(heterogeneity)
분리성	비분리성(inseparability)
재고, 보관 가능	소멸성(perishability)
물건	일련의 행위 또는 과정(process)
소유권의 이전 가능	소유권이 이전 불가능
주 가치는 공장에서 생산	주 가치는 구매자·판매자의 상호작용에서 생산

자료 :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41

셋째, 비분리성(Inseparability)이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특성을 가진다. 상품의 경우 생산되고 판매된 후 소비되지만, 서비스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이를 분리할 수 없어 대량생산이나 공급과정에서의 품질관리가 곤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멸성(Perishability)이다. 상품의 경우 판매되지 않는다면 재고로 보관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1회의 소비에 의해 소멸한다. 이와 같이 공급측면에서 저장이 불가능하고 한 번의 소비로 소멸되기 때문에 수요량에 대한 예측, 그리고 거기에 맞춘 생산량 조절이 어렵게 된다.¹⁵⁾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분류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15)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41

또한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 많은 학자의 연구결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며 <표 2-2>와 같다.

<표 2-2> 서비스의 분류

학 자	분류기준	분 류	주요내용
엘프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나 활동	생산자 서비스	중간재투입재적 요소 서비스 :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유통 서비스	유통 및 운송 관련 서비스 :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개인 서비스	소비자 관련 서비스 :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그루벨과 워커	지출	사회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구매서비스 (엘프링의 개인서비스) : 호텔, 금융·보험업, 이·미용업
		생산자 서비스	요소 및 중간투입서비스 : 회계, 광고, 정보·통신 등
하타	매매대상	정부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엘프링의 사회서비스) : 교육, 의료, 보건, 국방, 치안 등
		물적 서비스	물자매매수단 서비스 : 임대 및 리스, 오락·게임업
		인적 서비스	인간행위관련 서비스 :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업 등
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시스템적 서비스	조직화된 제도적 서비스 : 정보·통신업, 보험업 등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간투입성격 서비스 : 금융, 수리, 컨설팅 서비스 등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소비자·물리적·심리적 상태관련 서비스 : 여객운송, 의료, 교육, 통신 등

자료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p.683

2.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분류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생산의 객체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이라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이외의 산업을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 즉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3분류를 하면 제1차 산업을 채취산업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수렵업 등을 포함하는 농림어업, 제2차 산업을 가공 산업으로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광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제3차 산업, 즉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최초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인 UR 협상 과정에서는 <표 2-3>과 같이 서비스를 12개 부문(sector)으로 나누고, 이 12개 서비스부문을 다시 155개의 세부문(subsector) 혹은 업종으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는 대체로 UN의 잠정중심생산물 분류(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¹⁷⁾

16) 성일석, 「국제서비스통상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65

17) 윤창인,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8

<표 2-3> UR에서의 서비스산업 분류

분 야	하 위 분 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임대,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빌딩,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 및 조립,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매·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기타 인간건강, 사회,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내수면, 항공, 우주, 철도, 도로,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 WTO,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된 한국의 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는 현재 대분류 코드 G에서 U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산업 분류

대 분류	중 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9차 최신개정(2009년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통계청 고시, 대분류 항목명 및 내용설명, Titles and Descriptions of Industries

3.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자유화의 경제적 의미

1) 서비스무역의 분류와 중요성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기존의 서비스의 특성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형태가 있고 가시적이며 저장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도 있고, 서비스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무역(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은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한다.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며 무역 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무역 장벽은 국경 외에도 제도나 규정·관습·생활양식 등 일반 상품보다 다양하다. 자유화를 측정하기도 곤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일반상품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무역은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알려져 왔다.

즉, 비거주자에게 판매되어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하게 되는 서비스의 국제거래나 생산자의 국적에 따른 서비스의 국제상행위를 포함하고 있다.¹⁸⁾ 여기서 WTO의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시한 서비스의 공급 형태적 분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2-5> 보면 GATS는 서비스를 1종 서비스: 국경을 넘는 서비스; 2종 서비스: 타국에 가서 구입하는 서비스; 3종 서비스: 주재국에 상업적 기업 설치; 4종 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등 네 가지로 공급형태를 나누고 있다.¹⁹⁾

18) 庄妍妍,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崇實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2011, p.6

19) 유장희,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국원』, 2009, p.25

<표 2-5> 서비스의 공급형태

공급자 주재	기 준	형 태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회원국의 영토내로 서비스가 인도됨 ²⁰⁾	국경간 공급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인도됨 ²¹⁾	해외소비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가 인도됨 ²²⁾	상업적 주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자연인으로서 주재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인도됨 ²³⁾	자연인의 주재

자료 :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8 March 2001, p.9

과거에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 기능이 분리되어 이를 별개의 독립적 업체가 공급하게 됨으로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힘입어 원격지간 조달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business)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였다.²⁴⁾

다양한 서비스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생산자서비스 혹은 인프라서비스 등 최신 서비스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산 부문에 기본적 투입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서

20)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21) Service deliver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to a service consumer of the Member

22)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through the commercial presence of the supplier

23)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ith supplier present as a natural person

24) "DDA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배제도, 석사학위논문, p.18

비스부문의 발전 없이는 관련 제조업 부분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효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작게 받는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경기 및 고용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위를 서비스의 중요성이라 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무역은 세계 경제와 각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무역은 현재 국가경제와 주권에 밀접한 분야까지도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일국의 서비스무역 발전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둘째,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소득탄력성이 낮아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 폭이 작아져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셋째, 일국의 경제활동에 있어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높은 선진경제국일 수록 국가경제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넷째, 서비스무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킨다. 서비스는 독립적인 무형상품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 통신, 회계, 법무,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분업화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무역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한다. 관광, 문화, 스포츠, 유통, 판매 등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상대적으로 고용창

출 효과가 매우 커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이에 따른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여섯째,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전적인 산업을 크게 압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촉매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국가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

2)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의미

서비스무역에는 실제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동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가지는 공공성과 외부성 때문에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에 의한 무역장벽이 더 크며, 특히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이유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무역이 자유화 된다는 의미는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고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란 관세장벽의 제거 내지 완화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화의 국경장벽을 완화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데 더 큰 정책목표의 의의를 두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관세철폐 등의 국경 장벽제거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통적 인습에 의한 거래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변화 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의 내용을 보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인하여 긍정적 측면으로는 시장 경쟁원리에 의하여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결과 국민들의 후생이 증대되고, 국제협력의 강화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선진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시장의 조기개방으로 인하여 상품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금융부분의 개방으로 통화정책효과가 감소하고, 경쟁력 열위로 국민경제의 해외전도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북한 핵 문제와 지정학적 RISK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자원본의 해외도피가 이

루어져서 국가의 경제적 주권 및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⁵⁾

그리고 서비스부분에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자국서비스산업의 도산, 무역외거래에서 국제수지적자, 외국문화의 국내쇄도로 인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혼란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신중히 개방하여야 한다.

<표 2-6>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제 효율성제고	금융부분 개방으로 통화정책 효과 감소
자원배분의 효율화	경쟁력 열위로 국민경제의 해외 전도 심화
고용기회의 증대	자원의 해외도피 우려
생산율 재고	고유의 문화, 예술에 대한 악영향
선진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국가의 주권 및 안전보장 저해
소비자편익을 향상	기술이전의 장기화에 따른 비료열위상태 지속 (특히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 부분)
국민후생의 증대효과	
국제협력의 강화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상품수출에 대한 규제의 완화 효과	

자료: “서비스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조민철, 1993

25) 배재도, ‘DDA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p.9

IV.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1. 세계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1970년대 이후 상업에 통합된 부수기능으로 간주되던 서비스가 상업에서 독립적인 부문으로 분리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과 서비스산업 자체의 중요성, 제조업과 보완관계 및 국제적 거래 증대 등으로 서비스무역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경제기구인 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약 70%에 이르고 있어 높은 수준이다.

<표3-1> OECD 가입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단위 : %)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호 주	68.9	68.4	헝가리	61.1	66.3	노르웨이	60.4	55.9
오스트리아	66.8	67.7	아이슬란드	61.3	70.5	폴란드	60.0	63.8
벨기에	70.1	75.3	아일랜드	56.2	64.8	포르투갈	66.3	73.0
캐나다	66.6	66.1	이탈리아	67.3	70.4	슬로바키아	59.5	57.2
체 코	55.2	58.7	일 본	65.5	70.1	스페인	65.7	67.4
덴마크	71.2	72.4	한 국	56.2	60.0	스웨덴	68.4	70.3
핀란드	63.7	64.2	룩셈부르크	78.2	84.0	스위스	69.8	70.8
프랑스	73.3	77.4	멕시코	59.2	60.9	터 키	52.2	63.5
독 일	67.7	68.7	네덜란드	70.7	73.6	영 국	68.7	76.3
그리스	72.2	75.9	뉴질랜드	67.6	69.2	미 국	72.8	76.9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16

<표 3-1>과 <표 3-2>에 의해서 한국도 1997년과 비교하여 2007년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증가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차

지하는 비중의 확대를 보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OECD 가입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단위 : %)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국 가	1997년	2007년
호 주	72.9	75.1	헝가리	58.1	62.4	노르웨이	72.1	76.0
오스트리아	61.6	66.9	아이슬란드	65.9	73.4	폴란드	47.5	54.5
벨기에	72.5	73.7	아일랜드	62.6	67.0	포르투갈	54.7	57.6
캐나다	74.1	75.9	이탈리아	60.5	65.5	슬로바키아	51.5	56.4
체 코	52.6	56.1	일 본	61.6	67.9	스페인	61.7	66.0
덴마크	69.5	73.6	한 국	57.8	66.7	스웨덴	71.3	76.1
핀란드	65.5	69.7	룩셈부르크	72.2	76.1	스위스	69.2	72.4
프랑스	70.3	74.2	멕시코	54.2	59.3	터 키	34.6	49.8
독 일	62.3	67.7	네델란드	74.1	77.9	영 국	71.4	76.3
그리스	57.7	66.1	뉴질랜드	67.5	71.0	미 국	73.4	78.8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30

<표 3-3>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이나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별 GDP 비교 (2011년)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2차산업	(제조업) ²⁶⁾	서비스업
한 국	1,114,700	2.7	31.5	(31.3)	58.0
중 국	7,321,935	10.0	46.6	(-)	43.4
인 도	1,872,845	17.5	26.7	(14.4)	55.7
일 본	5,896,795	1.2	26.2	(18.6)	72.7
터 키	774,775	9.1	27.9	(18.6)	63.0
멕시코	1,158,147	3.8	36.4	(18.2)	59.9
미 국	14,991,300	1.2	20.2	(12.9)	78.6
브라질	2,476,652	5.5	27.5	(14.6)	67.0
오스트리아	417,656				
벨기에	513,863				

자료 : 한국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2년)

1990년대부터 점증하던 전 세계 무역량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총 수출입액은 1994년 8조 3,68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1조 8,619억 달러로 3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의 총 수출입액도 1994년 2조 1,812억 달러에서 2008년 6조 7,294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무역규모 또한 줄어들었다.²⁷⁾

<표 3-4>에 의해서 2008년까지 서비스무역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상품 무역은 연평균 10.3% 증가하고,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9.49% 증가하였다. 비중으로 보면 동 기간 동안 전체 무역규모에서 상품 무역은

26) 2차 산업에는 제조업 및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27)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으며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정점에 다다랐다. 2011년 현재에도 여파가 있는 상황이다.

약 80%, 서비스무역은 약 2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품 무역과 서비스무역 모두 증가하여 전 세계 무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성비에서 여전히 상품 무역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무역량의 변화에서 2008년 비 2009년에 상품 무역은 22.8%나 감소하였으나 서비스무역의 감소는 11.4%에 그쳐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량의 하락폭이 작았다.

<표 3-4> 세계 상품 및 서비스무역 수출입 현황 (1994년~2009년)

(단위 : 억 달러, %)

연도	전체 무역		상품 무역				서비스무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4년	53,119	52,373	42,288	(79.6)	41,392	(79.0)	10,832	(20.4)	10,981	(21.0)
1995년	63,305	62,454	50,987	(80.5)	49,825	(79.8)	12,318	(19.5)	12,629	(20.2)
1996년	66,757	65,887	53,539	(80.2)	52,523	(79.7)	13,217	(19.8)	13,364	(20.3)
1997년	69,294	68,164	55,585	(80.2)	54,436	(79.9)	13,708	(19.8)	13,728	(20.1)
1998년	68,438	67,788	54,446	(79.6)	53,865	(79.5)	13,992	(20.4)	13,923	(20.5)
1999년	70,773	70,589	56,542	(79.9)	56,243	(79.7)	14,231	(20.1)	14,347	(20.3)
2000년	78,724	78,973	63,639	(80.8)	63,695	(80.7)	15,085	(19.2)	15,278	(19.3)
2001년	76,181	76,633	61,044	(80.1)	61,190	(79.8)	15,137	(19.9)	15,443	(20.2)
2002년	80,336	80,193	64,014	(79.7)	63,771	(79.5)	16,322	(20.3)	16,422	(20.5)
2003년	93,612	92,953	74,798	(79.9)	74,214	(79.8)	18,814	(20.1)	18,739	(20.2)
2004년	113,576	112,711	90,835	(80.0)	90,485	(80.3)	22,741	(20.0)	22,227	(19.7)
2005년	129,291	128,061	103,909	(80.4)	103,420	(80.8)	25,382	(19.6)	24,642	(19.2)
2006년	148,918	146,483	120,173	(80.7)	118,992	(81.2)	28,746	(19.3)	27,491	(18.8)
2007년	173,391	169,526	138,859	(80.1)	137,043	(80.8)	34,532	(19.9)	32,482	(19.2)
2008년	198,888	195,630	160,053	(80.5)	158,566	(81.1)	38,834	(19.5)	37,064	(18.9)
2009년	158,395	154,946	124,158	(78.4)	121,889	(78.7)	34,236	(21.6)	33,058	(21.3)

주 : 1. 전체무역은 수출액(상품+서비스) 와 수입액(상품+서비스) 뜻함
 2. () 안은 전체무역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

<표 3-5>에 의해서 서비스무역국 순위에서 보듯이 서비스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모두 미국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다. 미국은 2011년 서비스수출에서는 5,810억 달러 수출 및 13.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서비스수입에서는 3,950억 달러 수입 및 10.0%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상품 무역에서 7,860억 달러의 큰 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는 1,8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상품 무역 자의 일부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위국으로 서비스수출국은 영국이, 수입국은 독일이 차지하였다. 영국은 수출액 2,740억 달러로 수출에서 6.6%의 점유율을, 독일은 수입액 2,890억 달러로 수입에서 7.3%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상품 수출에서는 11위국으로 점유율 2.6%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품 수출 및 수입에서 모두 3위국으로 흑자를 기록한 독일의 경우 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서 각각 3위, 2위를 나타내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상품 수출 1위, 수입 2위인 중국도 상품 무역에서는 흑자를, 서비스 무역에서는 수출 4위, 수입 3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넓은 토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지속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상품무역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²⁸⁾ 서비스무역에서는 수출 8위, 수출액 1,370억 달러, 수입 7위, 수입액 1,240억 달러로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두 한국 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서비스수출국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품수출국으로는 7위를 차지하였으나 서비스수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출액이 940억 달러로 2.3%의 점유율을, 수입액은 980억 달러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상품 무역에서는 수출 5,550억 달러, 수입 5,240억 달러로 3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바 한국은 상품무역에서는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가졌으나 서비스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인도는 상품 무역에서 수출은 19위국(점유율 1.7%), 수출액 3,050억 달러를 기록하다.

<표 3-5> 세계 주요 서비스 및 상품 무역국 순위 (2011년)

(단위 : 10억 달러, %)

순 위	서비스 무역국 순위						상품 무역국 순위					
	수출국			수입국			수출국			수입국		
	국가	금액	점유 율	국가	금액	점유 율	국가	금액	점유 율	국가	금액	점유 율
1	미국	581	13.9	미국	395	10.0	중국	1,898	10.4	미국	2,266	12.3
2	영국	274	6.6	독일	289	7.3	미국	1,480	8.1	중국	1,743	9.5
3	독일	253	6.1	중국	237	6.0	독일	1,472	8.1	독일	1,254	6.8
4	중국	182	4.4	영국	270	4.3	일본	823	4.5	일본	855	4.6
5	프랑스	167	4.0	일본	266	4.2	네덜란드	661	3.6	프랑스	714	3.9
6	일본	142	3.4	프랑스	143	3.6	프랑스	596	3.3	영국	638	3.5
7	스페인	140	3.4	인도	124	3.1	한국	555	3.0	네덜란드	599	3.2
8	인도	137	3.3	네덜란드	118	3.0	이탈리아	523	2.9	이탈리아	557	3.0
9	네덜란드	134	3.2	아일랜드	114	2.9	러시아	522	2.9	한국	524	2.8
10	싱가포르	129	3.1	이탈리아	114	2.9	벨기에	477	2.6	홍콩	511	2.8
11	홍콩	121	2.9	싱가포르	114	2.9	영국	473	2.6	캐나다	463	2.5
12	아일랜드	109	2.6	캐나다	100	2.5	홍콩	456	2.5	인도	463	2.5
13	이탈리아	105	2.5	한국	98	2.5	캐나다	452	2.5	벨기에	461	2.5
14	스위스	94	2.3	스페인	93	2.4	싱가포르	410	2.2	스페인	374	2.0
15	한국	94	2.3	러시아	88	2.2	사우디	365	2.0	싱가포르	366	2.0
	세계 전체	4,170	100.0	세계 전체	3,955	100.0	세계 전체	18,255	100.0	세계 전체	18,438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2012년), p.26, p.28

서비스무역을 운송, 여행 및 기타 상업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할 경우, <표 3-6>과 같이 부문별 세계 수출입 비중을 보면 3개 부문의 서비스 중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 후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통신, 건설, 보험, 금융, 기술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00년 기준 전체 서비스무역 수출입액에서 기타 상업서비스는 수출에서 44.8%, 수입에서 4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액이 2조 2,40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액에서 5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1조 8,60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입액에서 47.1%를 차지하였다.²⁹⁾

<표 3-6> 세계 서비스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단 : 10억 달러, %)

구 분		금액	비 중				
			2011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수 출	전 체	4,17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860	23.0	22.7	20.0	21.0	20.6
	여행	1,065	32.1	27.7	25.5	25.2	25.6
	기타 상업서비스	2,240	44.8	49.6	54.4	53.7	53.7
수 입	전 체	3,955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1,100	28.7	28.8	25.4	27.3	27.9
	여행	950	29.9	27.0	24.4	24.1	24.0
	기타 상업서비스	1,860	41.4	44.2	48.9	47.5	47.1

자료 : WTO(2012년), p.146

29)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2008년 이후 일시적으로 비중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상업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운송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무역액 보다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서비스무역에 있어 3개 부문별 서비스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표 3-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운송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7%, 여행의 경우도 7%, 기타 상업서비스의 경우 10%로 기타 상업서비스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서비스부문 모두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한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상품 부문의 성장률이 -22%로 감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운송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2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여행과 기타 상업서비스는 -9%, -7%로 10% 이내의 하락률을 보였다. 2010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의 큰 하락세 때문에 2005년~2011년 평균 성장률은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세계 서비스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금액	연평균 성장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05~11년
상품	18,217	-22	22	19	10
상업서비스	4,419	-11	10	11	9
운송서비스	855	-23	15	8	7
여행	1,063	-9	9	12	7
기타 상업서비스	2,228	-7	8	11	10

자료 : WTO(2012년), p.22

<표 3-8>에 의하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부문별 수출액 구성비를 살펴 보면 여행 부문과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두 부문 모두 24.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³⁰⁾ 여행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비스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지만,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0) IMF의 BOP 통계에서는 서비스를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서비스 등 총 11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통계 매뉴얼 BPM5 기준)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운송리스 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건축서비스 등 전문·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부문은 제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소·시간 제약의 극복과 서비스 공급의 국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³¹⁾의 확대 추세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업서비스 부문의 무역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10년)

(단위 : 억 달러, %)

운송 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 서비스	서비스 합 계
7,854 (20.8)	9,384 (24.9)	834 (2.2)	945 (2.5)	841 (2.2)	2,660 (7.1)	2,152 (5.7)	2,451 (6.5)	9,374 (24.9)	430 (1.1)	748 (2.0)	37,673 (10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1년)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부문은 20.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운송서비스 부문이다. 운송서비스 부문은 화물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기타 운송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 제조업의 업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 상품의 교역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운송서비스, 여행, 사업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 부문이 세계 서비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 건설, 보험, 통신, 정부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순으로 점유율의 순위를 이루고 있다.

3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내 핵심역량을 제외한 업무처리의 과정을 외부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전략 차원의 아웃소싱 방식을 말한다. BPO는 기획, 운영, 모니터링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아웃소싱 하는 개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단순한 업무를 위탁하는 수준의 기존 아웃소싱과는 구분된다.

2.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발전 추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생산 측면에서나 고용 측면에서나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에 의하면 한국 서비스산업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를 알아본다. 먼저 한국의 전체 산업을 포함하는 총 GDP는 2001년 722.2조 원에서 2004년 832.3조 원, 2006년 910.1조 원, 2010년 1,042.1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4.16%이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2001년 394.9조 원에서 2004년 441.9조 원, 2007년 502.1조 원, 2010년 540.3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63% 성장하였다.

한국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1.15%, 2004년 59.22%, 2006년 58.56%, 2008년 58.54%, 2010년 57.43%를 기록하여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그 비중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은 2001년 3.91%, 2005년 3.33%, 2010년 3.03%를 보이며 그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대상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도 1.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그 GDP가 2001년 159.7조 원에서 2004년 201.2조 원, 2007년 247.4조 원, 2010년 287.6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0% 성장하여 타 산업들 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WTO/GATS에서는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 국민소득 부속표의 GDP 통계에서는 서비스업과 별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대상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5.61% 및 2.3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대상기간 동안 평균 약 2.2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건설업은 평균 약 7.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2001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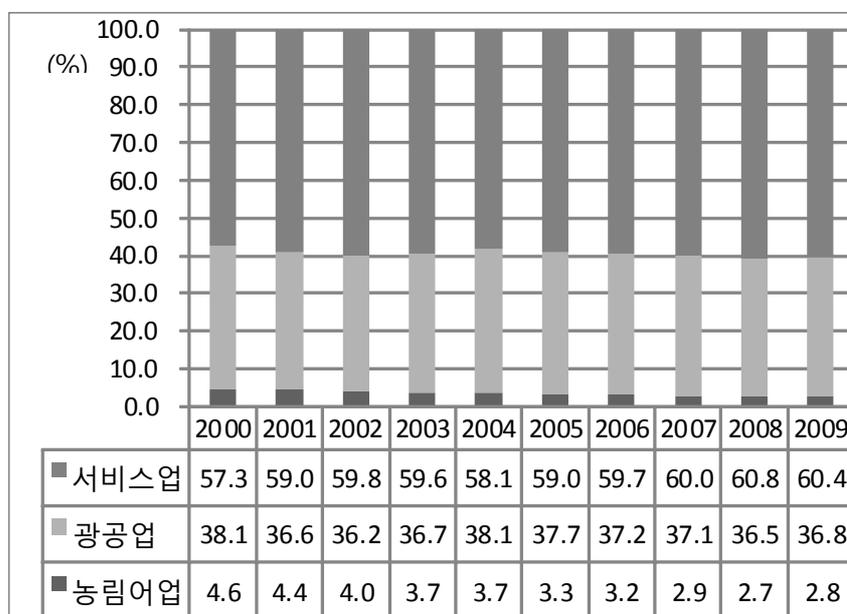
(단위 : 백억 원,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2,528 (3.91)	2,472 (3.57)	2,339 (3.28)	2,551 (3.42)	2,585 (3.33)	2,624 (3.22)	2,729 (3.18)	2,883 (3.27)	2,976 (3.36)	2,848 (3.03)	1.45
광업	194 (0.30)	194 (0.28)	201 (0.28)	200 (0.27)	199 (0.26)	199 (0.24)	191 (0.22)	192 (0.22)	191 (0.22)	176 (0.19)	-1.01
제조업	15,965 (24.72)	17,361 (25.08)	18,294 (25.66)	20,117 (26.96)	21,365 (27.54)	23,089 (28.31)	24,741 (28.78)	25,447 (28.87)	25,057 (28.27)	28,760 (30.57)	6.40
전기·가스·수도사업	1,369 (2.12)	1,476 (2.13)	1,534 (2.15)	1,639 (2.20)	1,761 (2.27)	1,833 (2.25)	1,903 (2.21)	2,020 (2.29)	2,102 (2.37)	2,202 (2.34)	5.61
건설업	5,173 (8.01)	5,353 (7.73)	5,825 (8.17)	5,944 (7.97)	5,928 (7.64)	6,056 (7.43)	6,213 (7.23)	6,061 (6.88)	6,172 (6.96)	6,168 (6.56)	2.36
서비스업	39,489 (61.15)	42,423 (61.28)	43,172 (60.56)	44,186 (59.22)	45,750 (58.96)	47,766 (58.56)	50,205 (58.41)	51,588 (58.54)	52,192 (58.89)	54,029 (57.43)	3.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920 (12.26)	8,341 (12.05)	8,082 (11.34)	8,075 (10.82)	8,247 (10.63)	8,579 (10.52)	9,029 (10.50)	9,151 (10.38)	9,073 (10.24)	9,688 (10.30)	2.49
운수 및 통신업	3,098 (4.80)	3,202 (4.62)	3,233 (4.53)	3,438 (4.61)	3,529 (4.55)	3,708 (4.55)	3,914 (4.55)	4,103 (4.66)	3,867 (4.36)	4,237 (4.50)	3.77
금융보험업	4,077 (6.31)	5,028 (7.26)	5,060 (7.10)	5,052 (6.77)	5,339 (6.88)	5,561 (6.82)	6,161 (7.17)	6,461 (7.33)	6,743 (7.61)	6,908 (7.34)	6.36
부동산 및 임대업	5,763 (8.93)	5,900 (8.52)	6,006 (8.42)	6,116 (8.20)	6,322 (8.15)	6,460 (7.92)	6,552 (7.62)	6,649 (7.54)	6,637 (7.49)	6,657 (7.08)	1.65
정보통신업	2,668 (4.13)	3,044 (4.40)	3,188 (4.47)	3,399 (4.56)	3,626 (4.67)	3,824 (4.69)	3,966 (4.61)	4,102 (4.65)	4,193 (4.73)	4,347 (4.62)	6.80
사업서비스	3,130 (4.85)	3,400 (4.91)	3,632 (5.09)	3,711 (4.97)	3,789 (4.88)	3,972 (4.87)	4,180 (4.86)	4,299 (4.88)	4,273 (4.82)	4,321 (4.59)	3.47
공공행정 및 국방	4,382 (6.79)	4,479 (6.47)	4,582 (6.43)	4,690 (6.29)	4,820 (6.21)	5,052 (6.19)	5,218 (6.07)	5,290 (6.00)	5,489 (6.19)	5,582 (5.93)	2.58
교육 및 서비스업	4,001 (6.20)	4,211 (6.08)	4,416 (6.19)	4,547 (6.09)	4,650 (5.99)	4,853 (5.95)	4,997 (5.81)	5,162 (5.86)	5,214 (5.88)	5,266 (5.60)	3.31
보건 및 사회복지	2,236 (3.46)	2,380 (3.44)	2,527 (3.54)	2,679 (3.59)	2,856 (3.68)	3,089 (3.73)	3,291 (3.83)	3,420 (3.88)	3,690 (4.16)	3,951 (4.20)	5.40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867 (1.34)	995 (1.44)	966 (1.36)	975 (1.31)	1,011 (1.30)	1,074 (1.32)	1,178 (1.37)	1,218 (1.38)	1,248 (1.41)	1,256 (1.34)	5.80
기타 서비스	1,346 (2.08)	1,443 (2.08)	1,480 (2.08)	1,504 (2.02)	1,561 (2.01)	1,642 (2.01)	1,718 (2.00)	1,742 (1.98)	1,767 (1.99)	1,816 (1.93)	3.44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64,575	69,229	71,294	74,614	77,589	81,568	85,952	88,144	88,624	94,085	4.26
순생산물세	7,635	8,146	8,260	8,616	8,935	9,437	9,699	9,709	9,551	10,140	3.30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72,223	77,377	79,556	83,231	86,524	91,005	95,651	97,850	98,163	104,211	4.16

주 : 1.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2. () 안은 총부가가치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연평균성장률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의 연간 평균 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그림 3-1>에 의하면 제조업에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을 포함하여 광공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등 3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은 2000년 57.3%를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여 2009년에는 60.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0년에 다시 58.5%차지하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³²⁾ 광공업은 2000년 38.1%에서 2009년에는 36.8%를 차지하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2.8%로 40% 정도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3-1> 한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주 : 광공업은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0년)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2000년~2008년과 2004년~2010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가 8차 개정(2000년) 기준에서 9차 개정(2007년) 기준으로 변경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8년까지는 8차 개정(2000년) 기준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2009년과 2010년에 한하여 9차 개정(2007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32) 녹색성장정책지표,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2011년)

<표 3-10>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0년~2008년)

(단위 : 천 명,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2,243 (10.60)	2,148 (9.96)	2,069 (9.33)	1,950 (8.81)	1,825 (8.09)	1,815 (7.94)	1,785 (7.71)	1,726 (7.37)	1,693 (7.18)	-3.44
광업	17 (0.08)	18 (0.08)	18 (0.08)	17 (0.08)	16 (0.07)	17 (0.07)	18 (0.08)	18 (0.08)	21 (0.09)	2.91
제조업	4,233 (20.29)	4,267 (19.78)	4,241 (19.13)	4,205 (18.99)	4,290 (19.02)	4,234 (18.52)	4,167 (18.00)	4,119 (17.58)	4,079 (17.30)	-0.63
전기·가스·수도사업	64 (0.30)	58 (0.27)	52 (0.23)	76 (0.34)	72 (0.32)	71 (0.31)	76 (0.33)	86 (0.37)	91 (0.39)	5.72
건설업	1,580 (7.47)	1,585 (7.35)	1,746 (7.88)	1,816 (8.20)	1,820 (8.07)	1,814 (7.94)	1,835 (7.93)	1,850 (7.89)	1,819 (7.72)	1.83
서비스업	12,958 (61.25)	13,497 (62.57)	14,044 (63.35)	14,075 (63.58)	14,535 (64.44)	14,903 (65.20)	15,272 (65.97)	15,634 (66.72)	15,877 (67.34)	2.58
도매 및 소매업	3,833 (18.12)	3,931 (18.22)	3,991 (18.00)	3,871 (17.48)	3,805 (16.87)	3,748 (16.40)	3,713 (16.04)	3,677 (15.69)	3,635 (15.42)	-0.65
숙박 및 음식점업	1,919 (9.07)	1,943 (9.01)	2,007 (9.05)	1,981 (8.95)	2,057 (9.12)	2,058 (9.00)	2,049 (8.85)	2,049 (8.74)	2,042 (8.66)	0.79
운수업	1,068 (5.05)	1,114 (5.16)	1,140 (5.14)	1,084 (4.90)	1,128 (5.00)	1,149 (5.03)	1,163 (5.02)	1,214 (5.18)	1,203 (5.10)	1.54
통신업	192 (0.91)	208 (0.96)	231 (1.04)	249 (1.12)	248 (1.10)	279 (1.22)	308 (1.33)	284 (1.21)	269 (1.14)	4.58
금융 및 보험업	752 (3.55)	760 (3.52)	734 (3.31)	751 (3.39)	738 (3.27)	746 (3.26)	786 (3.40)	809 (3.45)	827 (3.51)	1.23
부동산 및 임대업	351 (1.66)	381 (1.77)	413 (1.86)	423 (1.91)	453 (2.01)	497 (2.17)	500 (2.16)	505 (2.16)	488 (2.07)	4.30
사업 서비스업	1,010 (4.77)	1,149 (5.33)	1,251 (5.64)	1,303 (5.89)	1,461 (6.48)	1,540 (6.74)	1,669 (7.21)	1,845 (7.87)	1,920 (8.14)	8.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8 (3.58)	701 (3.25)	702 (3.17)	757 (3.42)	768 (3.40)	791 (3.46)	801 (3.46)	797 (3.40)	840 (3.56)	1.38
교육 서비스업	1,191 (5.63)	1,236 (5.73)	1,335 (6.02)	1,484 (6.70)	1,507 (6.68)	1,568 (6.86)	1,658 (7.16)	1,687 (7.20)	1,747 (7.41)	4.9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28 (2.02)	484 (2.24)	551 (2.49)	539 (2.43)	594 (2.63)	646 (2.83)	686 (2.96)	745 (3.18)	852 (3.61)	9.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65 (1.73)	393 (1.82)	418 (1.89)	425 (1.92)	458 (2.03)	501 (2.19)	499 (2.16)	493 (2.10)	532 (2.26)	4.90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	1,091 (5.16)	1,197 (5.55)	1,271 (5.73)	1,208 (5.46)	1,318 (5.84)	1,380 (6.04)	1,440 (6.22)	1,529 (6.52)	1,522 (6.46)	4.35
총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1.37

주 : 1.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2.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3. () 안은 총 취업자 수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표 3-11>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004년~2010년)

(단위 : 천 명, %)

항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농업, 임업 및 어업	1,824 (8.09)	1,813 (7.93)	1,781 (7.69)	1,723 (7.35)	1,686 (7.15)	1,648 (7.01)	1,566 (6.57)	-2.50
광업	15 (0.07)	17 (0.07)	16 (0.07)	17 (0.07)	23 (0.10)	23 (0.10)	21 (0.09)	6.72
제조업	4,177 (18.52)	4,130 (18.07)	4,057 (17.52)	4,014 (17.13)	3,963 (16.81)	3,836 (16.32)	4,028 (16.90)	-0.5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2 (0.32)	71 (0.31)	76 (0.33)	86 (0.37)	90 (0.38)	96 (0.41)	78 (0.33)	1.90
건설업	1,818 (8.06)	1,813 (7.93)	1,833 (7.92)	1,849 (7.89)	1,812 (7.69)	1,720 (7.32)	1,753 (7.36)	-0.58
서비스업	14,653 (64.96)	15,013 (65.69)	15,392 (66.49)	15,747 (67.20)	16,004 (67.88)	16,183 (68.85)	16,384 (68.76)	1.8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0 (0.22)	56 (0.25)	62 (0.27)	62 (0.26)	66 (0.28)	72 (0.31)	65 (0.27)	4.76
도매 및 소매업	3,802 (16.86)	3,746 (16.39)	3,711 (16.03)	3,673 (15.67)	3,631 (15.40)	3,600 (15.32)	3,580 (15.02)	-1.00
운수업	1,136 (5.04)	1,165 (5.10)	1,193 (5.15)	1,247 (5.32)	1,248 (5.29)	1,247 (5.31)	1,280 (5.37)	2.02
숙박 및 음식점업	2,057 (9.12)	2,058 (9.00)	2,049 (8.85)	2,049 (8.74)	2,044 (8.67)	1,936 (8.24)	1,889 (7.93)	-1.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6 (2.69)	638 (2.79)	651 (2.81)	634 (2.71)	627 (2.66)	652 (2.77)	668 (2.80)	1.67
금융 및 보험업	737 (3.27)	745 (3.26)	786 (3.40)	806 (3.44)	821 (3.48)	766 (3.26)	808 (3.39)	1.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3 (2.01)	496 (2.17)	500 (2.16)	505 (2.16)	489 (2.07)	500 (2.13)	517 (2.17)	2.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6 (2.69)	625 (2.73)	681 (2.94)	702 (3.00)	756 (3.21)	844 (3.59)	883 (3.71)	6.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6 (3.04)	742 (3.25)	819 (3.54)	954 (4.07)	974 (4.13)	944 (4.02)	1,023 (4.29)	7.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8 (3.40)	791 (3.46)	801 (3.46)	797 (3.40)	840 (3.56)	1,032 (4.39)	960 (4.03)	4.17
교육 서비스업	1,545 (6.85)	1,604 (7.02)	1,702 (7.35)	1,740 (7.43)	1,784 (7.57)	1,831 (7.79)	1,799 (7.55)	2.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2.62)	639 (2.80)	681 (2.94)	740 (3.16)	842 (3.57)	998 (4.25)	1,153 (4.84)	11.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6 (1.53)	383 (1.68)	379 (1.64)	371 (1.58)	419 (1.78)	390 (1.66)	380 (1.59)	1.83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	1,271 (5.63)	1,325 (5.80)	1,377 (5.95)	1,467 (6.26)	1,463 (6.21)	1,371 (5.83)	1,379 (5.79)	1.46
총 취업자수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0.92

주 : 1. 산업별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3. () 안은 총 취업자 수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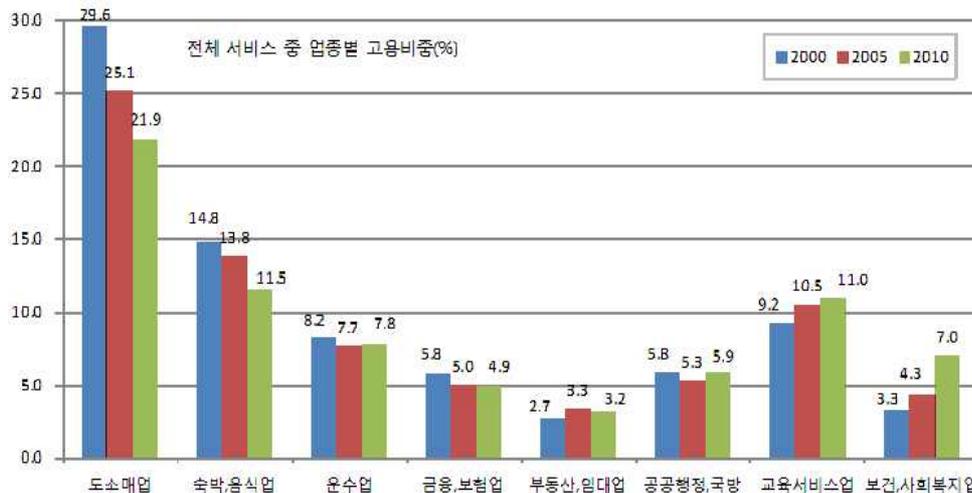
<표 3-10>과 <표 3-11>비교해서 보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2000년 2,116만 명, 2005년 2,286만 명, 2010년 2,38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1.37%이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0.92%이다.

<그림 3-2>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화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000년 29.6%, 2005년 25.1%, 2010년 21.9%로 계속해서 서비스업에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00년 14.8%, 2005년 13.8%, 2010년 11.5%로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그 비중의 변화 추이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이 2000년에 9.2%, 2005년에 10.5%, 2010년에 11.0%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도 2000년 3.3%, 2005년 4.3%, 2010년 7.0%로 나타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 한국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의 변화 (2000년~2010년)

(단위: %)



주: 1. 2000년과 2005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2000년) 기준이며, 2010년은 9차(2007년)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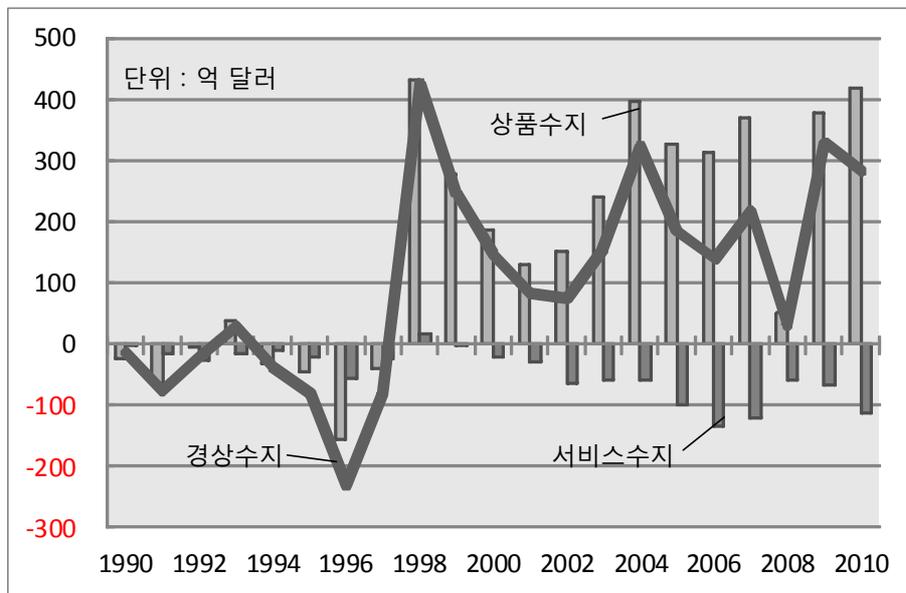
2.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의 변동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990년 이후 경상수지의 적자기조를 유지했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에는 환란의 여파로 서비스 수지도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3-3>에 의하면 1998년에 일시적으로 기록한 최고치의 경상수지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 323억 달러의 경상수지로 정점의 흑자폭을 보였으나 다시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327억 달러의 경상수지를 기록하였다. 1998년부터 상품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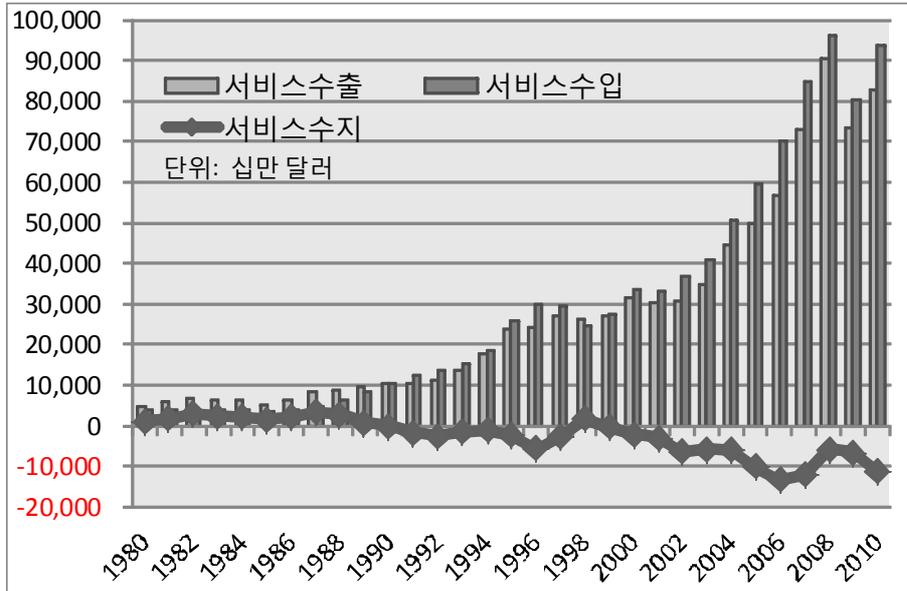
<그림 3-3> 한국의 경상수지 발전 추이 (1990년~2010년)



주 : 경상수지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그림 3-4>에 의하면 90년 이전까지는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각종 외환규제로 서비스 수지는 흑자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적자 폭은 2008~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10년 현재는 다시 확대되었다.

<그림 3-4>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 발전 추이 (1980년~2010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에는 외환 위기로 인한 1998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계속해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총수출입 금액은 2000년에 651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에 1,870억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서비스무역량이 감소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2010년에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은 서비스무역 흑자구조를 보였으나 1990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계속해서 적자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여 서비스 수출보다 서비스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단계를 구분하자면 태동기(흑자기) → 적자 전환기 → 적자 확대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한국 서비스 무역의 적자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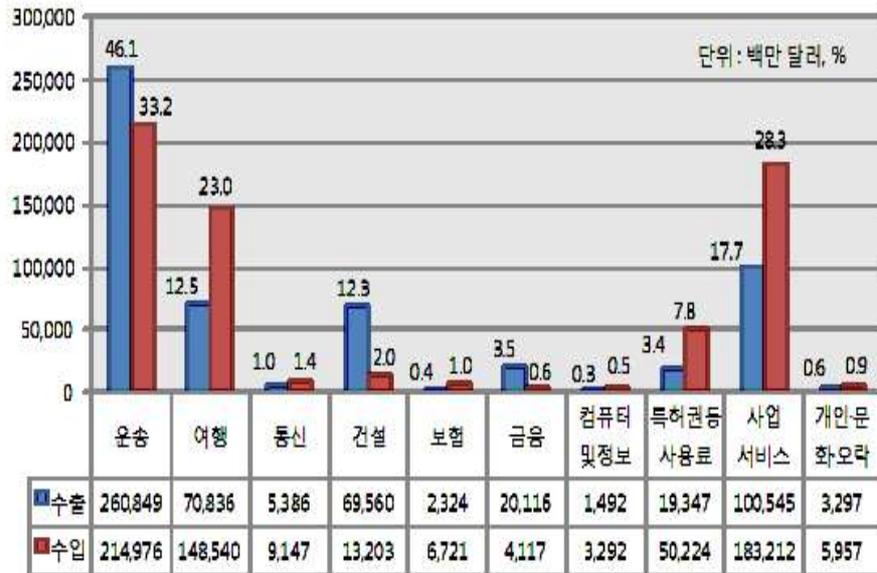
<표 3-12> 한국 서비스무역의 발전단계

구분	태동기	적자 전환기	적자 확대기
시기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무역 본격화 - 연간 교역액 94억 달러 ▶ 무역 흑자기 - '82~'89년 흑자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른 교역증가 - 연평균 11.7% 증가 ▶ 적자 전환기 - 연평균 21.6억 달러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증가세 둔화 - 연평균 8.6% 증가 ▶ 적자 심화기 - 연평균 116.6억 달러 적자

자료 : 최용민 외,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Vol.9 No.46, 『국제무역연구원』, 2010.9, p.4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액을 <그림 3-5> 살펴보면, 운송서비스가 수출액 2,608억 달러, 수입액 2,1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가장 큰 누적 수출입액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 (2000년~2010년)



주 : 데이터 레이블은 비중(%)을 나타내며 데이터 표는 금액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그러므로 한국 서비스무역액에서 운송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사업서비스 부문은 수출액 1,005억 달러, 수입액 1,832억 달러를 기

록하여 수출 및 수입에서 운송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 부문은 수출액 708억 달러, 수입액 1,485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에서 세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나타냈다. 3개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부문에서는 교역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에 의해 한국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운송부문에서는 2000년 약 13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448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수입액은 2000년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 약 3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운송 서비스수지도 2000년 약 26억 달러에서 2008년 약 80억 달러, 2010년 약 9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국 서비스무역에서 가장 교역규모도 크며 주요 수출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송과 함께 건설, 금융, 정부서비스부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여행, 통신, 보험, 컴퓨터 및 정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여행 부문의 경우 2000년 수출 약 68억 달러, 수입 약 71억 달러로 약 3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07년에 수출 약 61억 달러, 수입 약 220억 달러로 약 1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서비스무역에서 대표적인 수입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부문은 2000년 수출 약 7억 달러, 수입 약 32억 달러로 약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10년에 수출 약 31억 달러, 수입 약 90억 달러로 약 5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수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건설서비스의 흑자가 약 96억 달러, 운송서비스는 약 93억 달러, 금융서비스는 약 20억 달러, 정부서비스는 약 1억 달러 순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나머지 부문에서는 사업서비스의 적자가 약 168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여행서비스가 약 79억 달러,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부문이 약 58억 달러, 통신서비스가 약 6억 달러, 보험서비스가 약 5억 달러, 개인·문화·오락 서비스가 약 4억 달러,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부문이 약 2억 달러 순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3-13> 한국 서비스무역 업종별 현황 (2000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비스 전체	수지	-2,037	-2,969	-6,442	-5,792	-5,958	-9,952
	수출	31,540	30,200	30,557	34,975	44,540	49,745
	수입	33,577	33,169	36,999	40,767	50,498	59,696
운송	수지	2,639	2,138	1,915	3,567	4,875	3,733
	수출	13,687	13,180	13,216	17,180	22,529	23,877
	수입	11,048	11,043	11,301	13,613	17,655	20,144
여행	수지	-298	-1,233	-4,529	-4,745	-6,281	-9,600
	수출	6,834	6,384	5,936	5,358	6,069	5,806
	수입	7,132	7,617	10,465	10,103	12,350	15,406
통신서비스	수지	-235	-344	-308	-352	-190	-330
	수출	387	398	378	341	446	443
	수입	623	742	685	693	636	773
건설서비스	수지	746	964	1,753	1,645	2,169	3,828
	수출	933	1,190	2,184	2,038	2,659	4,707
	수입	187	226	431	394	490	879
보험서비스	수지	-78	-314	-534	-356	-323	-564
	수출	68	60	37	34	139	169
	수입	146	374	571	390	461	733
금융서비스	수지	514	450	625	597	957	1,416
	수출	705	533	695	699	1,083	1,651
	수입	191	83	70	101	127	23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지	-81	-88	-105	-104	-132	-126
	수출	11	16	20	30	25	57
	수입	92	104	124	134	157	183
지적재산권 등사용료	수지	-2,533	-2,129	-2,167	-2,259	-2,585	-2,652
	수출	688	924	835	1,311	1,861	1,908
	수입	3,221	3,053	3,002	3,570	4,446	4,561
유지보수 서비스	수지	79	6	18	11	15	-17
	수출	103	37	25	17	99	19
	수입	24	31	7	6	85	36
사업서비스	수지	-3,128	-2,849	-3,602	-4,362	-5,037	-6,115
	수출	7,200	6,388	6,006	6,687	8,125	9,422
	수입	10,328	9,237	9,607	11,049	13,163	15,538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23	-68	-99	-185	-248	-209
	수출	137	138	185	76	128	268
	수입	160	206	283	261	376	477
정부서비스	수지	363	499	589	751	823	686
	수출	787	952	1,043	1,203	1,377	1,418
	수입	425	454	454	453	554	73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단위 : 백만 달러, %)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 전체	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27.91
	수출	56,842	72,995	90,635	73,580	82,719	11.09
	수입	70,174	84,962	96,369	80,221	93,949	11.50
운송	수지	2,674	4,481	7,998	5,242	9,252	22.98
	수출	25,807	33,556	44,768	28,693	38,044	13.19
	수입	23,133	29,076	36,770	23,451	28,791	12.01
여행	수지	-13,063	-15,837	-9,292	-5,221	-7,904	69.52
	수출	5,788	6,138	9,774	9,819	9,765	5.05
	수입	18,851	21,975	19,065	15,040	17,669	10.98
통신서비스	수지	-370	-366	-425	-502	-575	13.75
	수출	642	547	724	725	742	8.30
	수입	1,012	913	1,149	1,227	1,317	8.71
건설서비스	수지	5,695	7,869	11,079	11,747	9,608	32.88
	수출	7,003	9,698	13,686	14,553	11,842	32.79
	수입	1,308	1,828	2,608	2,806	2,235	32.51
보험서비스	수지	-580	-585	-277	-395	-469	41.77
	수출	274	415	466	340	391	38.54
	수입	854	1,000	744	735	860	27.80
금융서비스	수지	1,996	3,304	3,095	1,573	1,987	20.76
	수출	2,543	4,001	3,785	2,280	2,847	20.51
	수입	547	696	691	708	860	26.69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지	-350	-204	-268	-183	-242	21.73
	수출	248	340	304	218	235	57.66
	수입	598	544	571	401	477	28.64
지적재산권 등사용료	수지	-2,605	-3,399	-3,274	-3,989	-5,819	9.98
	수출	2,046	1,735	2,382	3,199	3,146	18.80
	수입	4,650	5,134	5,656	7,188	8,965	11.35
유지보수 서비스	수지	64	48	4	-4	-28	-23.79
	수출	82	77	47	27	14	47.35
	수입	18	29	44	31	42	124.42
사업서비스	수지	-7,173	-7,409	-14,279	-15,005	-16,836	20.61
	수출	10,532	14,421	12,965	12,088	13,910	7.85
	수입	17,705	21,829	27,245	27,094	30,746	12.06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302	-482	-364	-323	-381	42.89
	수출	369	448	528	523	635	25.08
	수입	671	929	891	846	1,016	21.94
정부서비스	수지	681	612	270	419	179	0.69
	수출	1,509	1,620	1,206	1,115	1,150	4.70
	수입	828	1,009	936	696	971	10.2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표 3-14> 한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비중 변화 (2001년~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서비스 전체	63,369	67,556	75,741	95,039	109,441	127,016	157,957	187,004	153,801	176,668	121,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	24,223	24,517	30,793	40,184	44,021	48,940	62,632	81,538	52,144	66,835	47,583
	(38.2)	(36.3)	(40.7)	(42.3)	(40.2)	(38.5)	(39.7)	(43.6)	(33.9)	(37.8)	(39.1)
여행	14,001	16,400	15,461	18,419	21,212	24,638	28,114	28,839	24,858	27,434	21,938
	(22.1)	(24.3)	(20.4)	(19.4)	(19.4)	(19.4)	(17.8)	(15.4)	(16.2)	(15.5)	(19.0)
통신서비스	1,139	1,063	1,034	1,081	1,216	1,654	1,460	1,873	1,952	2,060	1,453
	(1.8)	(1.6)	(1.4)	(1.1)	(1.1)	(1.3)	(0.9)	(1.0)	(1.3)	(1.2)	(1.3)
건설서비스	1,415	2,614	2,432	3,149	5,586	8,311	11,526	16,294	17,359	14,077	8,276
	(2.2)	(3.9)	(3.2)	(3.3)	(5.1)	(6.5)	(7.3)	(8.7)	(11.3)	(8.0)	(6.0)
보험서비스	434	608	424	600	901	1,128	1,415	1,210	1,075	1,251	905
	(0.7)	(0.9)	(0.6)	(0.6)	(0.8)	(0.9)	(0.9)	(0.6)	(0.7)	(0.7)	(0.7)
금융서비스	616	764	800	1,210	1,886	3,090	4,697	4,476	2,988	3,707	2,423
	(1.0)	(1.1)	(1.1)	(1.3)	(1.7)	(2.4)	(3.0)	(2.4)	(1.9)	(2.1)	(1.8)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20	144	163	182	240	846	884	875	618	712	478
	(0.2)	(0.2)	(0.2)	(0.2)	(0.2)	(0.7)	(0.6)	(0.5)	(0.4)	(0.4)	(0.4)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3,976	3,838	4,881	6,307	6,469	6,696	6,869	8,037	10,387	12,110	6,957
	(6.3)	(5.7)	(6.4)	(6.6)	(5.9)	(5.3)	(4.3)	(4.3)	(6.8)	(6.9)	(5.8)
유지보수 서비스	69	31	23	184	55	100	105	91	58	55	77
	(0.1)	(0.0)	(0.0)	(0.2)	(0.1)	(0.1)	(0.1)	(0.0)	(0.0)	(0.0)	(0.1)
사업서비스	15,626	15,613	17,737	21,288	24,960	28,237	36,250	40,210	39,182	44,656	28,376
	(24.7)	(23.1)	(23.4)	(22.4)	(22.8)	(22.2)	(22.9)	(21.5)	(25.5)	(25.3)	(23.4)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345	468	338	504	745	1,039	1,377	1,419	1,369	1,651	925
	(0.5)	(0.7)	(0.4)	(0.5)	(0.7)	(0.8)	(0.9)	(0.8)	(0.9)	(0.9)	(0.7)
정부 서비스	1,406	1,496	1,656	1,931	2,151	2,338	2,629	2,143	1,810	2,121	1,968
	(2.2)	(2.2)	(2.2)	(2.0)	(2.0)	(1.8)	(1.7)	(1.1)	(1.2)	(1.2)	(1.8)

주 : 1. 무역량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임.

2. () 안은 서비스산업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표 3-14>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하여 전체 서비스 무역량에서 업종별로 차지하는 무역량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서비스가 평균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가 평균 23.4%, 여행이 19.0%, 건설서비스가 평균 6.0%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가 평균 5.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서비스무역의 대부분인 93.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가 각각 1.8%, 통신서비스가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1% 미만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5>에 의해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누어 전체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각각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액 비중에서는 역시 운송서비스가 평균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서비스가 평균 18.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여행이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서비스도 10.7%로 수출액과 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와 금융서비스가 각각 평균 3.4%, 3.3%를 차지하여 금융서비스도 수출액·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가 평균 2.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수입액 비중에서도 운송서비스가 평균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업서비스가 평균 27.9%, 여행이 23.7%,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가 8.0%를 차지하였다. 수출액 비중과는 달리 수입액에서 건설서비스는 평균 1.8%의 비중에 그쳤다. 그리고 통신서비스가 평균 1.5%, 보험서비스와 정부서비스가 각각 1.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 미만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 3-15>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수출입 비중 변화 (2001년~2010년)

(단위 : %)

항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서비스 전체	수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	수출	43.6	43.2	49.1	50.6	48.0	45.4	46.0	49.4	39.0	46.0	46.0
	수입	33.3	30.5	33.4	35.0	33.7	33.0	34.2	38.2	29.2	30.6	33.1
여행	수출	21.1	19.4	15.3	13.6	11.7	10.2	8.4	10.8	13.3	11.8	13.6
	수입	23.0	28.3	24.8	24.5	25.8	26.9	25.9	19.8	18.7	18.8	23.7
통신서비스	수출	1.3	1.2	1.0	1.0	0.9	1.1	0.7	0.8	1.0	0.9	1.0
	수입	2.2	1.9	1.7	1.3	1.3	1.4	1.1	1.2	1.5	1.4	1.5
건설서비스	수출	3.9	7.1	5.8	6.0	9.5	12.3	13.3	15.1	19.8	14.3	10.7
	수입	0.7	1.2	1.0	1.0	1.5	1.9	2.2	2.7	3.5	2.4	1.8
보험서비스	수출	0.2	0.1	0.1	0.3	0.3	0.5	0.6	0.5	0.5	0.5	0.4
	수입	1.1	1.5	1.0	0.9	1.2	1.2	1.2	0.8	0.9	0.9	1.1
금융서비스	수출	1.8	2.3	2.0	2.4	3.3	4.5	5.5	4.2	3.1	3.4	3.3
	수입	0.2	0.2	0.2	0.3	0.4	0.8	0.8	0.7	0.9	0.9	0.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출	0.1	0.1	0.1	0.1	0.1	0.4	0.5	0.3	0.3	0.3	0.2
	수입	0.3	0.3	0.3	0.3	0.3	0.9	0.6	0.6	0.5	0.5	0.5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출	3.1	2.7	3.7	4.2	3.8	3.6	2.4	2.6	4.3	3.8	3.4
	수입	9.2	8.1	8.8	8.8	7.6	6.6	6.0	5.9	9.0	9.5	8.0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0.1	0.1	0.0	0.2	0.0	0.1	0.1	0.1	0.0	0.0	0.1
	수입	0.1	0.0	0.0	0.2	0.1	0.0	0.0	0.0	0.0	0.0	0.0
사업서비스	수출	21.2	19.7	19.1	18.2	18.9	18.5	19.8	14.3	16.4	16.8	18.3
	수입	27.8	26.0	27.1	26.1	26.0	25.2	25.7	28.3	33.8	32.7	27.9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0.5	0.6	0.2	0.3	0.5	0.6	0.6	0.6	0.7	0.8	0.5
	수입	0.6	0.8	0.6	0.7	0.8	1.0	1.1	0.9	1.1	1.1	0.9
정부서비스	수출	3.2	3.4	3.4	3.1	2.9	2.7	2.2	1.3	1.5	1.4	2.5
	수입	1.4	1.2	1.1	1.1	1.2	1.2	1.2	1.0	0.9	1.0	1.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년)

IV.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1. 국제경쟁력 분석 방법

한국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위하여 서비스 무역 전체와 서비스무역 각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서비스무역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각 부문별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지수를 통해 서비스무역의 어느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에서 세계 여러 파트너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체결이나 서비스협정의 체결 등 무역 자유화 협정 등의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개방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협상할 때 한국이 어떤 서비스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상대국의 적극적인 개방을 주문할지, 또한 어떤 서비스부문에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개방에 있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비스교역에 있어 국제경쟁력 평가는 당사국과 교역 상대국간의 서비스수출입액 등 직접적인 통계수치를 토대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특정국의 품목별 수출입액이나 특정 상대국에 대한 특정 산업 부문의 수출입액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일부 OECD 회원국 등에 한하여 집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서비스교역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국의 국제수지통계를 제공받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BOP(국제수지통계,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에서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액 통계를 활용하여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각 국별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IMF의 BOP에서 서비스무역 전체 및 부문별 통계를 추출하여 한국 및 비교대

상국들의 대 세계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대용치(Proxy)로 보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비교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MF의 2000년~2009년까지 10년간의 각 연도별 서비스무역 전체 및 부문별 수출입액을 추출하여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에도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 및 현시비교우위 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함께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의 대리국가로 보아 한국을 포함 총 7개국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비교대상 국가로 중국을 포함한 것은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역규모에 있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과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국제시장점유율(IMS)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은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사용도가 높은 지표이다. 이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의 수출입액이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MS_{ij} = \frac{X_{ij}}{X_{iw}} \times 100 (\%)$$

IMS_{ij} :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대세계 총수출액

X_{iw} : 일정기간중 i 상품(서비스) 전세계 총수출액

일국이 특정 상품(서비스)에서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액에서 그 나라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

이다. 이는 IMS의 값이 클수록 그 나라는 해당 특정 상품(서비스)의 수출시장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각국의 무역규모나 경제규모 같은 수치가 그로 반영되므로 상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쟁력의 평가나 비교우의 판단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2)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즉, 특정 상품(서비스)의 순수출액이 해당 상품(서비스)의 무역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TSI_{ij} :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에 대한 총수출액

M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서비스)에 대한 총수입액

TSI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 이면 완전수입특화, 0 이면 비교우위중립적인 상태, +1 이면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TSI를 국제경쟁력지수로 해석하면 이 지수가 양의 값(0 ~ +1) 을 가질 때 해당 업종 또는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음의 값(-1 ~ 0) 을 가질 때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지수는 어떤 국가의 특정 산업 수출구성비가 세계 전체의 그 산업 수출구성비에 비해 얼마나 큰가로 비교우위를 측정하고 이를 국제경쟁력의 척도로 삼는 방법이다.³³⁾ RCA 지수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지

33) 유일선, 김영환, 「한·중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국제지

수로서 특정 상품(서비스) 또는 산업의 비교우위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앞서 보았던 국제시장점유율(IMS)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 수치이므로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는 적절치 않은데 반해, RCA 지수는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상품(서비스)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도 비교가 용이하다 할 수 있다.

RCA 지수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그 나라 전체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즉, 세계시장에서 그 나라의 ‘특정 상품(서비스) 수출점유율’을 ‘전체 상품(서비스) 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가 수출하는 전체 상품(서비스)과 비교하였을 때 특정 상품(서비스)을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비율로 수출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 특정 상품(서비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CA_{ij} = \frac{(X_{ij}/X_{iw})}{(X_j/X_w)}$$

RCA_{ij}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무역에서 j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_w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서비스)의 전세계 총수출

X_{iw}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의 전세계 총수출

X_j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서비스)의 j국의 대세계 수출

X_{ij} : 일정기간중 상품(서비스) i 의 j국의 대세계 수출

위 식에 따라 RCA 지수 산출시 전체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총수출과 특정국 대세계 수출은 상품 수출을 제외한 서비스무역 전체 수출액, 즉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총수출과 특정국 대세계 수출은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액을 의미한다.³⁴⁾

RCA 지수만으로 국가들 간 또는 상품(서비스) 부문별 간에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1을 기준으로 영(0)까지의 값, 1을 기준으로 무한대(∞)의 값을

역학회』, 2009.6, p.601

34) 이에 따라 RCA 지수는 IMS 및 TSI와는 달리 서비스무역 부문별 RCA 지수만 산출되며 서비스무역 전체 RCA 지수는 산출되지 않는다.

가져도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0을 기준으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TSI(무역 특화지수)와 함께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RCA 지수는 TSI와 달리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RCA 지수도 0을 기준으로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칭적 구조를 가지도록 변형을 유도한 변형된 RCA 지수 즉, RSCA(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SCA_{ij} = \frac{RCA_{ij} - 1}{RCA_{ij} + 1}$$

본 논문에서는 RCA 지수의 활용에 있어서 TSI와 동일한 구간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대칭성이 있는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지수를 활용한다. RSCA 지수는 TSI와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1) IMS 분석결과 및 평가

한국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무역 전체와 서비스무역 부문별 IMS를 산출하면 <표 4-1>과 같다.

산출한 IMS 값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무역은 세계 시장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00년에 약 2.07%를 기록한 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2%에 미치지 못하는 약 1.84%에서 약 1.97%를 차지하였다. 2007년에 약 2.09%로 다시 2%대 수치로 회복하였고 2008년에 약 2.33%, 2009년에 약 2.14%를 각각 기록하였다. 결국 대상기간 동안 수출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서비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평균 약 2.012%로 2% 내외를 기록하였다.

한국 서비스무역 부문별 IMS는 운송 서비스 부문과 건설 부문이 대상기간 동

안 매년 계속해서 3% 이상을 기록하며 약 2% 내외를 나타낸 연도별 서비스 전체 IMS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IMS 수치로는 해당 2개 부문이 한국 서비스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IMS (2000년~2009년)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비스 전체	2.0737	1.9673	1.8454	1.8436	1.9358	1.9362	1.9546	2.0943	2.3274	2.1402
운송 서비스	3.9858	3.8777	3.7122	4.2556	4.4808	4.1941	4.0539	4.3744	5.0312	4.1955
여행	1.4352	1.3688	1.2151	0.9963	0.9513	0.8425	0.7677	0.7072	1.0250	1.1338
통신	1.1564	1.1390	1.0639	0.8105	0.8652	0.7470	0.9071	0.6649	0.7525	0.8011
건설	3.1207	3.9135	6.6368	5.3642	5.9220	8.4656	10.5626	11.6560	12.9237	15.3027
보험	0.2664	0.2146	0.0826	0.0628	0.2472	0.3422	0.4422	0.5442	0.5347	0.4045
금융	0.7055	0.5475	0.6624	0.5740	0.7130	0.9197	1.1383	1.3497	1.2801	0.9136
컴퓨터 및 정보	0.0218	0.0301	0.0324	0.0391	0.0262	0.0528	0.1898	0.2114	0.1508	0.1145
특허권 등 사용료	0.8134	1.1180	0.9271	1.2957	1.3983	1.2588	1.2527	0.8948	1.0637	1.4430
기타 사업 서비스	2.2705	1.9271	1.6608	1.5563	1.5550	1.5659	1.5322	1.7184	1.3687	1.3951
개인·문화·오락	0.5668	0.6174	0.7482	0.2781	0.3963	0.8317	1.0099	1.0893	1.2680	1.3658
정부 서비스	2.1674	2.5083	2.5445	2.4286	2.3870	2.2774	2.1642	2.1439	1.5782	1.614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의 수치로 작성

2) TSI 분석결과 및 평가

한국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무역 전체와 서비스무역 부문별 TSI를 산출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TSI (2000년~2009년)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비스 전체	-0.0375	-0.0560	-0.1064	-0.0883	-0.0728	-0.0991	-0.1124	-0.0810	-0.0325	-0.0464
운송 서비스	0.1067	0.0882	0.0781	0.1158	0.1213	0.0848	0.0546	0.0715	0.0981	0.1005
여행	-0.0213	-0.0881	-0.2761	-0.3069	-0.3410	-0.4526	-0.5302	-0.5633	-0.3222	-0.2100
통신	-0.2329	-0.3022	-0.2894	-0.3401	-0.1758	-0.2714	-0.2234	-0.2506	-0.2269	-0.2572
건설	0.6657	0.6812	0.6704	0.6763	0.6890	0.6854	0.6852	0.6827	0.6799	0.6767
보험	-0.3632	-0.7230	-0.8785	-0.8397	-0.5376	-0.6257	-0.5146	-0.4138	-0.2293	-0.3671
금융	0.5732	0.7307	0.8182	0.7471	0.7908	0.7507	0.6457	0.7036	0.6914	0.5263
컴퓨터 및 정보	-0.7930	-0.7310	-0.7288	-0.6365	-0.7221	-0.5242	-0.4132	-0.2304	-0.3058	-0.2956
특허권 등 사용료	-0.6480	-0.5355	-0.5647	-0.4628	-0.4098	-0.4100	-0.3890	-0.4948	-0.4074	-0.3840
기타 사업 서비스	-0.1785	-0.1823	-0.2307	-0.2459	-0.2366	-0.2450	-0.2540	-0.2044	-0.3551	-0.3830
개인·문화·오락	-0.0786	-0.1971	-0.2104	-0.5484	-0.4922	-0.2809	-0.2905	-0.3497	-0.2565	-0.2360
정부 서비스	0.2993	0.3546	0.3937	0.4534	0.4260	0.3188	0.2913	0.2326	0.1261	0.2424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의 수치로 작성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10년 동안 한국 서비스 전체의 TSI 값은 최대치(2008년) 약 -0.033에서 최소치(2006년) 약 -0.112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 10년간 계속해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의 서비스무역 전체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 부문별로는 운송 서비스, 건설, 금융, 정부 서비스 부문 등 4개 부문은 10년간 계속해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그 외 여행, 통신, 보험,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7개 부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시비교우위(RSCA) 분석결과 및 평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10년간 서비스무역 부문별 RCA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4-4)에 따라 RSCA 지수를 계산하면 <표 4-3>와 같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운송 서비스와 건설 부문은 10년간 계속해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서비스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2008년, 2009년은 연속으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사업서비스는 2000년에 양(+)의 값을 가졌으나 이후 2009년까지 계속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등 7개 부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RSCA지수 (2000년~2009년)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운송 서비스	0.3156	0.3268	0.3359	0.3955	0.3966	0.3683	0.3494	0.3525	0.3674	0.3244
여행	-0.1820	-0.1794	-0.2060	-0.2984	-0.3410	-0.3936	-0.4360	-0.4951	-0.3885	-0.3074
통신	-0.2840	-0.2667	-0.2686	-0.3893	-0.3822	-0.4432	-0.3661	-0.5181	-0.5114	-0.4553
건설	0.2016	0.3309	0.5649	0.4884	0.5073	0.6277	0.6877	0.6954	0.6948	0.7546
보험	-0.7723	-0.8033	-0.9144	-0.9341	-0.7735	-0.6996	-0.6310	-0.5875	-0.6263	-0.6821
금융	-0.4923	-0.5646	-0.4717	-0.5252	-0.4616	-0.3559	-0.2639	-0.2162	-0.2903	-0.4017
컴퓨터 및 정보	-0.9792	-0.9698	-0.9655	-0.9584	-0.9733	-0.9469	-0.8230	-0.8166	-0.8783	-0.8985
특허권 등 사용료	-0.4365	-0.2753	-0.3312	-0.1746	-0.1612	-0.2120	-0.2189	-0.4013	-0.3727	-0.1946
기타 사업 서비스	0.0453	-0.0103	-0.0527	-0.0845	-0.1091	-0.1057	-0.1212	-0.0986	-0.2594	-0.2108
개인·문화·오락	-0.5707	-0.5223	-0.4231	-0.7379	-0.6602	-0.3991	-0.3187	-0.3157	-0.2946	-0.2209
정부 서비스	0.0221	0.1209	0.1592	0.1369	0.1044	0.0810	0.0509	0.0117	-0.1918	-0.14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의 수치로 작성

V. 한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1.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제고 방안

1)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분석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르는 무역수지 악화, 온실가스 감축,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르는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온실가스배출이 적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서비스와 제조업 간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르는 상품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확대다 요구되고 있다. 환율 전쟁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 한·EU FTA가 발효 또는 발효 예정이어서, 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 경쟁력 강화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다. 이미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³⁵⁾가 발효된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가 서명된 상태이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EU와의 FTA 체결은 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된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³⁶⁾

35)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은 감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FTA에 대한 반감이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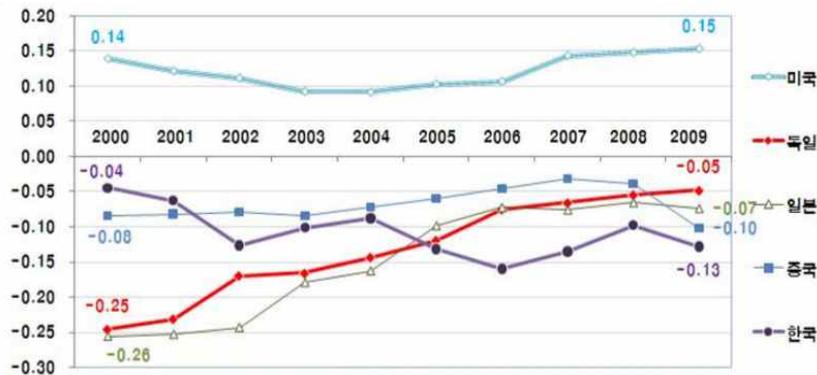
본 논문 한국 서비스무역현황에서 제시한 <그림 3-4> 서비스무역수지 발전추이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누적 기준으로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은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있으며, 수입특화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지(수출-수입)를 교역액(수출+수입)으로 나눈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한다.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2002년 이후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5-1>에 의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독일은 개선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출 경쟁력은 2000년 -0.04에서 2009년 -0.13으로 악화된다. 반면 독일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림 5-1> 주요 국가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2000년~2009년)



자료: UNC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2010년)

36)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0,11,30

<표5-1>에 의하면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2000년 2%로 분석대상 148개국 중 13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1.8%로 19위를 기록했다. 반면 상품 수출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분석대상 2000년 3%로 분석대상 216개국 중 8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9년에는 3.7%로 5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19.5%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15.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계최대 서비스 수출국을 유지한다. 일본은 2000년 4.6%로 미국(19.5%), 영국(7.9%), 독일(5.5%), 프랑스(4.6%)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9%로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과 중국이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독일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09년 7.0%로 상승했으며, 순위 역시 3위를 유지한다.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로 한국보다 1단계 낮은 14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9%로 5위를 기록했다.³⁷⁾

<표5-1>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주요 국가의 비중

(단위: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2000년	2.0	5.5	4.6	2.0	19.5
2009년	3.9	7.0	3.9	1.8	15.2

자료: UNCTA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2010년)

위에 설명하는 배경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내수 비중은 확대된다. 즉 서비스 수출보다 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출은 1995년 17.9조원에서 2005년 51.1조원으로 185.2% 증가한 반면 서비스 내수는 1995년 235.5조원에서 2005년 970.9조원으로 312.2%증가했다. 독일, 일본, 중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

37)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0.11.30

면 한국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1995년 4.9%, 2.2%, 3.4%에서 2005년 8.8%, 3.6%, 9.5%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비중은 1995년 7.1%, 200년 5.4%, 2005년 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어 국내 경쟁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³⁸⁾

둘째,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세계 제조업 경기와 관련이 높은 운수 서비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여행과 사업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는데 반해 운수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3대 서비스의 수출 비중의 합은 하락하고 있어 서비스 수출의 편중도는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운수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4.8%에서 2008년 58%로 급등했으며, 단지 2009년에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에 비해 8.5%하락한 49.5%를 기록했다. 여행서비스의 수출비중은 2000년 22.4%에 2009년 16.1%로 하락했고, 사업서비스는 2000년 23.6%에서 2009년 19.5%로 하락했다. ³⁹⁾

운수서비스는 상품교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운수 서비스 수출 역시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운수서비스 수출 중 70% 이상이 해운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9년 운수 수입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289.4억 달러를 기록했다. ⁴⁰⁾

셋째,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즉 서비스 수출의 생산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 부문 수출 1단위 증가했을 때 유발되는 국내 생산의 증가량으로 국내 생산 활동과 관련 있다. 한국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0.396에서 2000년 0.431 으로 상승했으나, 2005년 0.402로 하락했으며 독일과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0.344, 2000년 0.379, 2005년 0.472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⁴¹⁾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서비스부문 수출 1단위 증가했을 때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38)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39)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40)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2010년)

41)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방안”, p.14

증가량으로 GDP와 관련이 있다. 한국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178에서 2000년 0.186으로 상승했으나, 2005년 0.166으로 하락했으며, 독일과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116, 2000년 0.127, 2005년 0.159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42)

넷째,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환율과 서비스수출은 양의 관계에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은 하락하고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물량은 증가한다.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가격하락 효과보다 수출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물량 증가효과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서비스 수출은 환율에 민감해 졌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와 함께 경기의 회복 속도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상품 수출과 함께 수출의 중국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즉 상품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품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2000년 만해도 미국, EU,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3년 이후 교역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상품 수출과 같이 일부 국가에 대한편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2000년 6.4%에서 2009년 16.1%로 급등 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43)

2) 한국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함께 경상수지 목표제 함의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시장개방에 직면해 있어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위에 5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같은 대응방안을 작성 했다.

42)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43)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첫째,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제조 기업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서비스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동 브랜드 사용을 통한 브랜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 서비스산업 및 문화 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에 민간한 운수 수출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감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적응과 관련된 기상컨설팅, 기상정보, 에너지절약전문업, green building 건축 등과 같은 녹색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한류를 적극 활용한 현지 마케팅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디자인, R&D,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정보, 수출 보험 제도 등 수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것이다. 지식 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 기관 설립 및 석사박사 고급 인력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유인하는 등 지식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수출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산업의 R&D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서비스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과 국내 고급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출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거주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 덴마크의 'Business PhD'와 'Knowledge Pilots'등과 같은 고급전문 인력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대 중국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컨설팅, 법률 및 회계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등 사회 서비스와 같이 저개발 국가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OD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⁴⁴⁾ 또한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안국 서비스산업의 주요부문별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7개국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부문별로 산출한 IMS, TSI, RSCA 지수 값을 바탕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MS, TSI, RSCA 지수와 함께 서비스 수지도 함께 제시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지표들의 10년간 단순평균값은 최근의 추세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비교평가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상기간의 연도별 지표값에 대하여 중위연도인 2004년과 2005년에 0.1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하여는 최근 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대칭적 구성을 통해 10년간의 가중평균값으로 각 지표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5-2> 연도별 부여 가중치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가중치	0.06	0.07	0.08	0.09	0.1	0.1	0.11	0.12	0.13	0.14	1

44)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술 및 자금을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운송부문의 현황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운송서비스부문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IMS 수치는 약 4.3%로 나타나 7개국 중 6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RSCA 지수와 TSI 수치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다른 6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 서비스부문에서 한국은 비교대상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3> 한국 운송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2000년~2009년 가중평균)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IMS	4.270	2.872	5.009	6.962	5.978	5.100	9.839
TSI	0.091	-0.299	-0.017	0.070	-0.093	-0.044	-0.132
RSCA	0.355	-0.065	0.022	0.045	0.195	-0.219	-0.203
서비스수지 (단위: 백만달러)	4,248	-12,654	-1,250	-5,481	-7,559	-2,180	-17,037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의 수치로 작성

운송서비스수지는 2009년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 등의 증가로 운송서비스 수지의 증가세 지속이 기대된다.

<표 5-4> 한국 운송업 서비스수지 추이(2008년~2012년)

(단위: 백만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운 송 수 지	소계	932.9	425.1	854.5	684.8	578.8	
	해상운송 수지	소계	675.7	221.2	450.3	422.8	306.3
		해상운송수입	2,477.8	2,222.6	2,191.1	2,111.8	2,202.7
		해상운송수출	1,802.1	2,001.4	1,840.8	1,700.0	1,896.4
	항공운송 수지	소계	257.2	203.9	404.2	273.0	272.5
		항공운송수입	665.9	734.2	857.0	669.7	746.6
항공운송수출		408.7	530.3	452.8	396.7	474.1	

자료: 한국은행(2013년)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해상 운송서비스수지에 영향을 주는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운송서비스수지의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5월 수출입화물처리량은 5억 5,586만 톤으로 2011년 같은 기간의 5억 3,987만 톤 보다 약 3.5% 증가했다.

중남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수출입화물이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과 북미 수출입화물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5월에 각각 410만 톤, 210만 톤으로 증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를 2011년 대비 8.0% 증가한 2,330만 TEU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운송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됐다.⁴⁵⁾

운송서비스의 결정요인으로는 해운산업의 발달정도, 국토의 지리적 환경, 항만 발달, 대외무역규모 등을 들 수 있다.

- 해운산업 : 국적선(기)의 운송능력과 영업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존재
- 국토의 지리적 환경 : 물동량이 집결할 수 있는 국토의 지리적 위치
- 항만 :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항만 및 공항의 규모 및 시설
- 대외교역 규모 : 대외교역 규모가 클수록 운송량이 증가

한국의 운송 서비스 수지는 97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 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운수서비스는 건설, 금융등과 함께 서비스 수지의 대표적인 흑자 부문이다. 이는 한국 대외교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발전한데 기인했다. 운송수지 흑자 1~5위국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세계 해상운송 산업 순위 10위 안에 속하는 해운 대국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는 해운업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체의 허브항구 역할을 하는 항만 및 국토의 지리적 이점으로 운송수지 흑자를 영위하고 있다.

적자 1~5위국은 일본(2위), 미국(7위)를 제외하고 해운순위가 10위권밖에 위치한다.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 해상운송량(2010년 기준 세계교역액 1, 3위)으로 운송부문의 적자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운송수지 흑자국들은 모두 해운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45) 국토해양부, “2012년 항만물동량 전망” 보도자료, 2012.2.10

위치 및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양과 접한 국토환경 또는 반도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운송수지 흑자국들은 적자국에 비해 무역규모가 작고(한국 제외) 자국의 수출입과의 관련성이 낮다. 이는 이들은 비교적 소규모인 자국 수출입화물에 대한 의존보다는 3국간 해상운송, 부정기 해운서비스, 특정화물 운송에 대한 경쟁력 등을 갖추고 운송서비스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흑자국들의 25~30년간 교역액과 운송수출입 규모를 회귀분석한 결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양변수간 상관계수와 결정계수가 낮아 자국화물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로 노르웨이는 세계3위의 원유수출국인 자국의 원유수송에 따라 자국 화물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적자국들은 비교적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로서 자국화물과의 관련성이 높아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자국산 물동량에 비해 해운산업이 비교적 소규모 이다.

결국, 운송수지는 해당국의 무역규모보다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토의 지리적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 흑자국들은 대부분 바다와 접하고 교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지역에 고유한 운송화물의 존재가 운송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따라서 발달된 해운산업의 존재여부와 국가적 육성정책이 잘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흑자국들에 비해 무역규모가 적은 대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발달된 해운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자체의 물동량에 대한 의존 대신 자원운송, 3국간 무역운송 등으로 운송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미국, 일본은 대규모의 해운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대외 교역 규모가 커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해운산업은 경상수지에 대한 기여와 대외교역 운송지원 산업으로서 기간산업의 위치를 보유하고 적절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2010년 한국 운송서비스 수출금액은 380억 달러로서 수출금액으로 보면 반도체, 선박에 이은 3대 수출품

목이다. 즉, 운송서비스 수출액은 총 서비스 수출액 827억 달러의 45%를 차지하여 경상수지에 대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운업 육성을 위해 수출입 화물운송시 국적선 이용비중 제고('95년 : 23%→'06년 : 18% →'10년 15%로 하락)하고, 3국간 항로 신규노선 개척(동북아중심지의 위치를 활용한 Sea & Air 운송, 등), 해운규모 확장, 항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다.

한국 운송서비스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수출입 화물운송의 국내선 이용을 촉진하여 이용률 제고해야한다. 무역 1조불 달성 이후 교역액이 확대 되면서 수출입 운송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방지 하고 이를 최대한 국내부분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수출계약 시 수출은 CIF, 수입은 FOB 조건을 확대해야 한다.

늘어나는 교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까지 해운업을 세계5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총 49억 천백만 달러 약 5조원의 선박 추가확보비용이 소요⁴⁶⁾된다. 이를 위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선박금융공사”⁴⁷⁾설립이 필요하다. 동북아 중심지 위치를 활용하여 국내 해운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해야한다. 중국과의 see&air 운송과 같은 제3국 항로 개발 및 공략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북한개방을 고려하여 북한 및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항구와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 러시아라인의 활용방안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3) 여행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행 부문에서는 한국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약 1%의 IMS 수치를 보였고, TSI 및 RSCA 지수도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수지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여행 부문에서 한국은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6)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해양수산부, 2006년

47) 주택금융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특수지원 목적의 금융지원기관 형태

<표 5-5> 한국 여행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2000년~2009년 가중평균)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IMS	1.009	4.134	6.465	4.142	1.036	4.178	15.316
TSI	-0.334	0.094	0.167	-0.427	-0.547	-0.308	0.177
RSCA	-0.341	0.151	0.147	-0.210	-0.587	-0.312	0.017
서비스수지 (단위: 백만달러)	-7,758	4,468	12,989	-43,213	-20,598	-26,229	35,25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한국 여행업 서비스부문을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외래 관광객수(입국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출국자)증가세는 둔화했다.

<표 5-6>에 의하면 2012년 1~5월에 여행서비스수지는 -18.2억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36.9억 달러보다 18.7억 달러 적자가 축소했다. 2012년 1~5월 여행수지의 수입은 6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2012년 1~5월 여행수지의 지급은 78.5억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 80.4억 달러보다 1.9억 달러 감소했다.

업무여행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관광여행수지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 유학 및 연수 관련 여행수지도 적자 감소했다. 업무여행수지는 2011년 1~5월 0.6억 달러 적자에서 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2012년 같은 기간에 7.9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관광수지도 2011년 1~5월 -17.9억 달러였으나 2012년 같은 기간에 -9.4억 달러로 약 47% 적자폭이 축소했다. 이는 상반기 원화 약세 및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 및 유학연수생 등이 감소한 반면 중국, 일본 등, 외래 관광객과 업무자 방문하는 바이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6> 한국 항복별 여행업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단위: 억 달러)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업무	-6.7	7.6	6.1	-0.6	7.9
관광	-27.8	-1.1	-21.5	-17.9	-9.4
유학연수	-18.6	-13.3	-17.7	-18.2	-16.8
건강	-0.3	-0.0	-0.0	-0.1	0.1
합계	-53.5	-6.9	-33.1	-36.9	-18.2

자료: 한국은행(2013년)

<표 5-7>에 의하면 2012년 외래 관광객수와 1인당 지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해외여행객의 증가세는 미미했고 1인당 지출액은 감소했다.

2012년 외래 관광객은 1~5월에 43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3만 명보다 24.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은 54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증가에 그쳤다. 2012년 1~5월 외래 관광객의 1인당 평균지출은 1,366달러로서 2011년의 1,238달러보다 10.3% 증가한 반면, 해외 여행객의 1인당 지출액은 1,123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2% 감소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관광객 수도 증가세 유지했다.

일본 관광객은 엔화 강세⁴⁸⁾ 및 골든위크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5월에 15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로 증가 했다.

중국 관광객은 노동절 및 여수엑스포, 비즈니스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5월에 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증가했다.⁴⁹⁾

9~10월 중국의 휴가시즌과 엔화 강세 지속 한류 문화의 아시아 진출 확대 등

48) 2012년 1~5월 엔달러 환율은 79.4엔으로 2011년의 82.3엔보다 약 3.5%평가 결상되었고, 위안화 환율은 2012년 1~5월 6.6위안에서 6.3위안으로 약3.7%평가 절상되었음. 반면 원달러 환율은 2011년 1~5월1,106원에서 2012년 1~5월에 1,137원으로 평가 절화되었다.

49) 전체 외래 관광객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11년 22.7%로 크게 증가. 외래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동기 중 쇼핑을 목적으로 한 쇼핑형 관광객비중은 2007년 전체 관광객 중 12.6%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35.6%를 기록하는 등 약 3배정도 급증, 현대경제연구원, “일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 VIP Report. 2012.7.13

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아시아 관광객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표 5-7> 주요 국가별 외래관광객 추이 (2008년~2012년)

(단위: 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5월)
일본	964	1,343	1,226	1,141	1,515
중국	484	527	675	740	957
홍콩	61	91	92	100	138
대만	148	170	168	136	208
필리핀	115	116	124	134	138
전체	2,748	3,261	3,437	3,532	4,391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3년)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여행수지는 다른 서비스 업종들의 무역수지와 달리 수입특화의 구조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행수지를 일반여행과 유학연수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유학연수 수지의 수입특화구조화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 학생들의 외국유학은 활발한 반면 한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유학연수지급의 증가 보다는 유학생유치를 통한 유학연수 수입부진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학생들의 외국 유학 증가는 유학연수 수지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언어 및 문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부진은 단순히 유학연수 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학시절의 소비패턴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학 연수 수입은 장기적으로 서비스수지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학연수의 수입특화 구조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타 업종에 비해 지급

축소보다는 수입 확대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유학생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한국의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과 동시에 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 교육서비스의 국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는 외국 학생 유인과 국내에서 국제적 감각의 교육을 받은 내국인 인재양성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 관련 제도는 외국대학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한된 지역(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 설립된 외국대학은 광양에 2007년 개교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유일하다. 한국에 외국대학유치가 활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 및 운영규제로 인해 분교설립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낮고 운영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설립주체 제한으로 인한 과실송금불가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및 교사 확보를 들 수 있다. 과실송금 불허와 교지 및 교사규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규제이다. 싱가포르,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영리학교법인설립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유명 사립대학 중에서 New York University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와 같이 별도의 캠퍼스가 없는 대학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외국대학 유치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제한된 지역 내에 영리법인 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교지 및 교사 확보 완화 등 국제기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외국 대학 유치는 향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여행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은 남부유럽과 같은 계절적인 관광객 흡입요인도 없고 인구밀도도 세계최고 수준이며 관광자원도 희소한 편이다.

<표 5-8> 5대 여행수지 흑자국과 요인(2010년 기준)

5대 흑자국	여행 수출국으로서의 위치	수입대비 수출초과율	인구밀도 순위	문화유산 순위
1. 미국	세계정치, 경제의 세계중심국 일반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수요 풍부 유학 및 연수목적의 여행 최다.	43%	10위	10위
2. 스페인	수입액 측면에서 세계 2위의 관광대국 -2010년 연간 관광객수 5,260만명, 490억 유로의 수입을 올리는 관광산업은 국가 최고 기간산업	260%	14위	2위
3. 터키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를 점유 문화유적은 적지만 다수의 기독교 유적 보유	466%	15위	24위
4. 이태리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다양한 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강국	55%	28위	1위
5. 그리스	그리스 ·로마문명의 발상지	282%	13위	13위

자료 : CIA 핸드북(2010년), KOTRA 국가정보 등

전략적으로 여행사업 육성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즉,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광산업보단 한국의 특 장점을 지닌 산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의료관광 활성화나, 한류 및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K-POP의 열기를 국내 관광 산업과 연결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여행수지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숙박시설의 증대, 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과 중국 등 근거리의 아시아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의료 및 헬스 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9~10월 중국의 휴가시즌을 대비하여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숙박시설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

아시아 등지에서 한류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한류 문화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첫째, 독창적인 여행업을 육성하기위해서 한국의 발달된 IT기술과 의료기술을 결합한 의료관광의 활성화해야한다.

관광자원의 희소성, 해외수요의 증대 등의 개선은 정책적 노력에 한계에 따라서 한국이 장점이 있는 의료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의료관광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겠다.또한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우수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료계의 경쟁 우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Medical Tour)이란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증 또는 성형·피부과 등의 선택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외국인환자 유치(Medical Travel)는 수술 및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원정치료차 외국을 방문하는 집단을 상으로 한다고 구분하다. 한편, 정부가 2009년 의료의 개념을 확대하여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인바운드로 의료관광과 중증 해외환자 유치를 포함하고 아웃바운드로 병원 및 의료시스템 수출을 포함하는 한국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라고 설명하다. 한편, 의료수출이란 병원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에는 병원건설, 의료기기, 의약품, BT·IT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에는 의료인력, 운영(물류·리), 재무(펀딩), 보험, 의료제도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여러 이익단체와 여론에서 반하는 논리가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⁵⁰⁾

둘째, K-Pop 열기 및 한류를 관광으로 연결해야한다.

2011년 한류 수출은 총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류스타인 배 용준은 편당 500만 달러가 넘는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한류 남자 스타들이 적어도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한류 배우들은 할리우드 스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한류는 관광에도 크게 기여해 겨울연가가 인기리에 방영된 이후 2003년에 280만 명이었

50) 한국경제연구원,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규제연구 제22권 특집호, 2013.9

던 외국 관광객이 2004년 3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을 정도이다. 나아가 한류는 음식, 의류, 비디오 게임과 한국어 등 한국 문화의 다른 산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의 성공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들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되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 산업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인기와 정확히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명쾌한 목적을 위해 이 산업의 종사자들은 벼랑 끝 경쟁을 끊임없이 치러내고 있다. 요컨대 히트하지 못하면 사라져야 하는 무한 경쟁이 이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며, 한류의 성공신화를 배출한 토양이다. 한류의 다른 성공원인으로는 국제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류 종사자들은 그들의 서비스와 상품을 좁은 국내시장에 묶어두는 대신 넓은 국제시장에 진출했다. 이들은 고단한 국제화라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시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류의 성공은 경쟁적인 시장의 신호를 충실히 따른 자발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저 묵묵히 그러한 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한류의 성공을 도왔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이들을 돕는다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활동을 후원했다면 정부보조를 받는 활동은 활성화되었겠지만 지금처럼 수준 높은 작품을 배출하는 한류 문화의 창조성은 오히려 위축되었을 것이다.⁵¹⁾

그리고 K-Pop과 한류를 국내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K-Pop 스타들의 외국인 대상 공연 개최 연습실의 관광객 개방 팬미팅의 국내 개최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구상해 볼 수 있다. 한국 음식 체험여행사, 대장금 등 드라마 촬영지 관광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을 국내여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

3) 건설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 부문의 경우 한국이 매우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IMS 값도 약 9.3%로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TSI 값과 RSCA 지수 값이 각각 0.680, 0.593으로 높은 양(+의 수치를 보이면서 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 부문에서 한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OP 통계 매뉴

51) '한류로 살펴본 서비스 산업 선진화', 한국경제연구원, p.3

일의 개정에 따라 한국의 경우 지표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여지가 있으나 해외 건설에서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9> 한국 건설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2000년~2009년 가중평균)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IMS	9.297	5.607	7.287	16.021	13.813	1.783	7.395
TSI	0.680	0.614	0.364	0.130	0.135	0.186	0.635
RSCA	0.593	0.235	0.201	0.429	0.549	-0.637	-0.332
서비스수지 (단위: 백만달러)	5,656	1,770	2,438	2,811	1,874	249	3,57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건설부문 중동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지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건설서비스수지: 2012년 1~5월에 71.6억 달러 흑자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26.2억 달러 증가했다.

건설서비스 수입은 2012년 1~5월에 90.5억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56.4억 달러보다 약 34.1억 달러 증가했다.

건설서비스 지급은 2012년 1~5월에 18.9억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의 11.0억 달러보다 7.9억 달러 증가했다.

<표 5-10> 한국 건설업 서비스수지 추이 (2008년~2012년)

(단위: 억 달러)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설 서비스 수지	46.9	48.9	32.2	45.4	71.6

자료: 한국은행(2013년)

해외수주증가세: 중동과 중남미에서의 수주확대로 2011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었다.

중동에서의 수주액은 28.5억 달러 증가했고 중남미에서의 수주액은 37.9억 달러 증가했다. 아시아는 공사전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수주액은 5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의 재스민 혁명과 리비아시대 이후 민생 인프라 확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중남미와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및 플랜트의 발두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7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에도 건설서비스 수지의 증가가 됐다.⁵²⁾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금융 지원 및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오일달러가 풍부한 중동 지역의 민생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플랜트 건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 수주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장기 저리의 대출 규모 확대 및 해외 건설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세계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야한다. 또한 UAE 원전 수주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이 적극적인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수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4)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부문의 현황 분석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과 중국은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IMS 수치는 한국이 약 1.2%이고 중국은 영(0)에 가까운 0.1%를 기록하여 양국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양국의 TSI 수치 및 RSCA 지수 값도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은 TSI와 RSCA 지수 모두 -1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52) 해외건설협회, “201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및 2012년 전망”

<표 5-11> 한국 특허권 서비스부문 국제경쟁력 비교 (2000년~2009년 가중평균)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IMS	1.169	0.160	4.046	4.540	11.626	8.277	44.276
TSI	-0.454	-0.918	0.273	-0.121	0.088	0.162	0.486
RSCA	-0.273	-0.902	-0.087	-0.171	0.488	0.011	0.500
서비스수지 (단위: 백만달러)	-2,880	-6,096	3,021	-1,340	3,414	3,632	53,614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의 수치로 작성

특허권이란 것이 상품에 체화되는 기술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무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모두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기술 상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서비스 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권 등 사용료의 무역은 서비스무역이라기보다는 제조업 무역의 일부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서비스업체의 프랜차이즈요금 지급과 같이 제조업과 무관한 부분도 있으나, 상품제조·판매 시 발생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같이 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제조업 수출이 증가할수록 특허권 등 사용료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구조적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문제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지칭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의 활동도 우리나라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허관리전문기업은 생산 활동 없이 특허협상과 소송 등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나 손해배상금을 챙기는 기업을 지칭하며, 인텔렉추얼벤처스, 인터디지탈, NTP, 포젠트네트웍스, 텍서치등 전 세계적으로 220여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12>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수지 추이(2008년~2012년)

(단위: 백만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 타 사 업 서 비 스	소계	-3,273	-3,989	-5,887	-2,959	-4,951	
	수입	소계	2,382	3,199	3,145	4,336	3,436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수입	301	501	825	962	1,095
		기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입	2,080	2,698	2,319	3,374	2,341
	지급	소계	5,656	7,188	9,031	7,295	8,387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지급	1,001	983	1,311	1,221	2,103
		기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지급	4,655	6,205	7,721	6,073	6,284

자료: 한국은행(2013년)

문제는 뛰어난 상업화 기술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국 제조업체 들이 이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38건의 소송을 당하는 등 특허소송건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도 29건으로 세계에서 6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2009년 들어 특허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펀드’를 조성하고 ‘특허거래정보센터’를 조성하는 등 한국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2011년 7월 조성된 특허펀드는 2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후, 2011년까지 5,000억 원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텔렉추얼벤처스는 현재 운용자금만 50 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

개별 기술 및 특허의 매입은 기본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기술 및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운용자금 규모에서 격차가 크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외국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다. 공공예산만으로 운용자금 확보가 어려우면, 기술료 지급액이 높은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 개발과 국내기술 유출방지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퀄컴사에 CDMA 원천기술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도입 이래 50억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초기에 기술을 매입하였다면 10억 달러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기술매입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권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 특허권 출원 → 지적권 수치 라는 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개선의 선순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R&D비율(4위), 특허권(5위) 등은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범용생산기술 위주의 순위로 핵심부품 소재, 하이테크 산업부문에선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하이테크 산업 수입은 OECD 전체에서 2008년엔 8위 2009년엔 10위를 했다.

따라서 범용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특허출원보다는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 강화해야한다. 한국 수출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등 첨단제품 위주로 증가하면서 지적권 수치도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최근 산업간 금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IT의 첨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핵심원천·부품소재 관련기술 개발로 지적권 수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⁵³⁾

53) 박준,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1년

VI. 결론

과거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비교역제로 인식되어져 왔었다. 그러나 상품의 일부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독립적인 상품으로 공급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무역 자유화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서비스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무역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연평균 21.6억 달러였으나,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적자폭은 연평균 116.6억 달러에 이르러 서비스수지에 있어 적자가 심화되고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순위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2010년 기준 상품 무역에서는 수출 7위, 수입 10위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무역에서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서비스 수출 15위, 수입 12위에 그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국제무역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서비스무역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연구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경쟁력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한국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른 국가들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액을 IMF의 BOP 통계로부터 추출하여, 한국과 중국 및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서비스수지와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시장점유율(IMS)과 무역특화지수(TSI) 및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대용치(Proxy)로 보아 비교분석하였다.

산출과 고용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서비스무역에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90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그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적자구조가 고착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수지 흑자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분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분석결과 운송 부문, 금융 부문, 건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한국은 모두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관련이 높은 운송과 건설 부문은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특히 여행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이 무역적자가 크고 적자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경우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기타 사업 서비스부문의 경우 국제경쟁력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사업 서비스부문이나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의 경우 상품 생산과 수출과정에 투입되는 중요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면 상품을 수출을 하면 할수록 그 서비스적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서비스무역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과의 무역확대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수지 또한 적자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조업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과의 무역확대는 기술과 사업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입지를 좁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 전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타 사업서비스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부문 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인적자본 형태로 노동에 체화되기 때문에 교육과 연계된 사회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서비스무역에서의 국제시장점유율 등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 또는 산업의 서비스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무역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수출지원 여력이 상품 수출에 집중되어 왔으며, 서비스산업에서의 대내외적 진입장벽 및 규제로 인하여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수입특화되어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고, 서비스무역의 자국시장편향 특성에 따른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도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 교역당사국의 경제자유도 증가는 서비스무역 규모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무역 부문 중 운송 부문, 금융 부문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부문은 이미 개방되어 있고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다른 많은 서비스무역 부문의 경우 시장개방이 안 된 경우가 많으며, 부문별로 시장 개방에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낮을수록 시장 개방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부문에서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학 및 연수도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서비스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률·회계·연구·의료 서비스 등 한국의 많은 서비스산업 부문이 국제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경쟁 까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에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렇게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기조 속에서 그러한 산업들도 결국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⁵⁴⁾ 시장개방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여러 산업에서 그러한 경험을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54) 유창근, 전계서(각주 39), p.18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준구, 「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 p.17
- 김영환, 「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 해양대학교 대학원, 2009, p.7, 2012, p.8
- 김우규, 「 무역상무연구 」,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p.683
- 노택환, 「 국제통상정책론 」 2010.8.10, p.313
- 배재도, 「 DDA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 석사학위논문, p.9, 경북대학교
- 성일석, 「 국제서비스통상론 」,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11, p.41, 2011, p.65
- 유일선, 김영환, 「 국제지역연구 」, “한·중 서비스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제13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09, p.601
- 유장희, 「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 한국경제연구원, 2009, p.25, p.90
- 유창근, 「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 「 영산논총 」, Vol.16, 영산대학교, 2006, p.157
- 윤창인, 「 한·중·일 FTA: 경제적 서비스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2, 2005, p.38
- 이성준, 「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 무역학회지 」, 제2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00.4, p.196
- 이신규 「 국제통상의 이해 」, p.266
- 이창재 외,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 전략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 장연연, 「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崇實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2011.6, p.6
- 조민철, 「 서비스무역자유화에 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조인택, 「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제고의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2, p.55

최용민,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Trade Focus, Vol.9 No.46, 국제무역연구원, 2010.9, p.4

『국토해양부』, 「2012년 항만물동량 전망」, 2012

『나라경제』, 「2012년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2013.3월호

『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수출 활성화 방안」, 2010.12.2

『현대경제연구원』, 「14년 만에 서비스수지 흑자-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2012.7.25

『해외건설협회』, 「201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및 2012년 전망」

2. 외국문헌

Anderson, James E.,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1979

Anderson, James E. and Eric Van Wincoop.,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3. No.1, 2003

Bergstrand, Jeffrey H.,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 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1, No.1, 1989

_____, “The Gravity Model in International Trade: some Microeconomic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7, 1985

Biessen, G., “Is the Impact of Central Planning on the Level of Foreign Trade Really Negativ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5, 1991

Bikker, J. A., “An International Trade Flow Model with Substitution: An Extension of the Gravity Model.”, *Kyklos*, Vol.40, 1987

CAI, *The World Factbook: 2011 Edition (CIA's 2010 Edition)*, 2011

Dihel, N., F. Eschenbach and B. Shepherd, “South-South Services Trad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39, 2006

-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8 March 2001, pp.9
- IMF, *World Economic Outlook(September 2011)*,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9
-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aris: OECD Publishing, 2009
- _____,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DETAILED TABLES BY PARTNER COUNTRY 2004-2008) Volume 2010/2*, USA: OECD Publishing, 2011
- _____,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Volume I(DETAILED TABLES BY SERVICE CATEGORY 2000-2008) 2010*, Lexington: OECD Publishing, 2011.10
-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 “World Trade Organization(2012a)”, pp.26, pp.28
-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001.3
- _____,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1
- _____, *Measuring Trade in Servic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6
- _____,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 _____, *World Trade Report 2011*,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1

3. 인터넷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main.asp>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 국제부흥은행(IBRD,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 국토해양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tri.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www.spidc.go.kr
 해외건설협회, <http://kor.icak.or.kr/>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kr/>
 IMF <http://www.imf.org/>
 IMF eLibrary Data, <http://elibrary-data.imf.org/DataExplorer.aspx>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OECD 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 iLibrary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bank/download/WDIandGDF_excel.zip
 WTO List of all RTAs, <http://rtais.wto.org/WebControl/exportgrid.aspx/>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 Service Trade

Bingyu, Xu (서빙옥, 徐冰玉)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 Bong, Hwang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expanded continuously as the economy has progressed recently. In the past, the service industry was regarded as a field with low productivity, compared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it was characterized by a low level of technical standards and its labor-intensity.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begins to be newly recogniz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which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t not only enables commodities to be delivered in the long distances, but also makes the previous services embodied in the goods now more separate from those goods.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trade is highly emphasiz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service trade will be expanded because the value added ratio it has created is over 70%.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the service trade over world is just 20%. Compared with the classic

manufacturing industry, the service industry is highly value-added. It also encourages a stable national economy by stimulating other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creating jobs and promoting consumption.

Although Korean economy has enjoyed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has been burdened with the service trade defic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at is going on in Korean service industry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present progress of the service trade, Korea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trade and the main causes which decide the amount of exports in the service trade.

In order to analyze all of facts mentioned above in the service trade, several statistical researches are required. First, I took advantage of the evaluation index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uch a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IMS). IMF's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BOP) was used as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that the transportation service has shown the most competitive sector in Korean service trade while the financial service and the construction service are slightly competitive rather than other services. Secondly, I made an attempt to know what factors affects the service industry's growth. Gravity Model was utilized in doing that with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which targets 34 OECD members. It is found that the GDP growth of the importing country contributes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rade volume. It is also found that cultural accessibility (e.g. language, historical relation, and colonial experiences etc.) and economic freedom have a meaningful effect on servic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sequently, in order to expand the service trade, the policies which aims at expanding the freedom for both domestic trade and business are acutely required.